

들뢰즈의 역동적 생명주의: 예술에 대한 생명주의적 접근을 위한 형이상학적 기초

서론

제1장: 내재적 생성의 구조: 들뢰즈의 생명론적 존재론

- 1.1. 존재론적 기초: 내재적 존재의 구조.....
 - 1.1.1. 보편적인 존재론적 원리로서의 존재의 일의성(univocity)
 - 1.1.2. 보편적인 존재론적 기반으로서의 내재성의 평면(plane of immanence)
 -
 - 1.1.3. 존재의 일의성과 내재성의 평면의 상호관계
- 1.2. 과정적 역학으로서의 시간적 결정화
- 1.2.1. 존재(Being)에서 생성(Becoming)으로
 - 1.2.2. 시간적 구조로서의 잠재태/현실태 구분
 - 1.2.3. 크리스탈-이미지와 시간적 결정화
 - 1.2.4. 시간의 세 가지 종합
- 1.3. 작동 메커니즘으로서의 개체화(individuation)
- 1.3.1. 존재론적 레지스터로서의 강도(intensities)와 정동(affects)
 - 1.3.2. 단독적(singular)이고 비주체적인 개체화로서의 핵시어티(haecceity).
 -
- 1.4. 창조적 종합: 차등적 반복과 내재적 생산 ..
 - 1.4.1. 존재론적 근본 규칙으로서의 차이(difference)
 - 1.4.2. 근본/급진적 차이 및 긍정으로서의 영원 회귀
 - 1.4.3. 사건(event)의 논리: 단독성(singularity)과 내재적 생산

제2장: 비유기적 생명의 최소 작동 단위로서의 아상블라주(assemblage): 기계적 존재론을 향하여

- 2.1. 욕망의 기계적 본질
- 2.1.1. 결핍이 아닌 생산적 힘으로서의 욕망
- 2.2. 아상블라주 이론과 영토 역학(territorial dynamics)
- 2.2.1. 힘들의 역동적인 구성체로서의 아상블라주와 그 작동 원리
 - 2.2.2. 아상블라주 형성의 동력으로서의 욕망
- 2.3. 실험적 실천으로서의 기관 없는 몸(Body without Organ)
- 2.3.1. 탈충화(deterritorialization)로서의 BwO와 강도적 생성/’되기’
 - 2.3.2. 유기체와 유기적 조직화의 관계
- 2.4. 체계적 통합: 아상블라주, 욕망, 기관 없는 몸
- 2.4.1. 통합된 이론적 장치
 - 2.4.2. 생명론적 존재론과의 연관성

제3장: 생명력의 표현으로서의 예술

- 3.1. 감각의 복합체로서의 예술
- 3.1.1. 감각의 자율성
 - 3.1.2. 지각소(percepts)와 정동의 탈취(wresting)
- 3.2. 우주적-생성으로서의 예술
- 3.2.1. 집에서 우주로
 - 3.2.2. 우주적 힘의 포착
 - 3.2.3. 탈영토화와 창조
- 3.3. 비재현적(non-representational) 미학
- 3.3.1. 형상(figure): 구상화(figuration)와 재현(representation)을 넘어

3.3.2. 예술에서의 다이어그램(diagram)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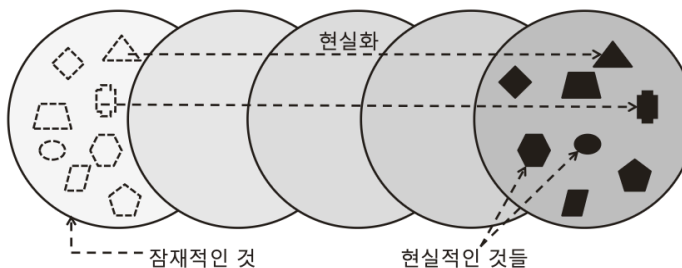
결론 – 강도의 미학과 생명주의 존재론

파트 I 서론 (추후 작성)

이 파트는, 질 들뢰즈의 역동적인 생명론의 주요 개념들의 열개를 따라가면서 그의 생명론적 예술론을 뒷받침하는 형이상학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들뢰즈의 개념적 틀 내의 일관성을 최대한 염두에 두면서, 존재의 일의성, 내재성의 평면과 같은 기본적 개념에서부터 잠재태와 현실태의 시간적 역학관계, 그리고 강도, 정동, 아상블라주의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차등적 반복에 의한 전반적인 존재론적 과정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파트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고자하는 바는, 이러한 들뢰즈의 개념들에 의해 궁극적으로 구성된 그의 내재적 존재론이라는 것이, 결국 예술이 그 전통적인 정의 혹은 목적을 넘어서, 즉 모방(mimesis)을 넘어 생명의 에너지를 직접 구현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비재현적 미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본 파트는 들뢰즈의 역동적인 생명의 존재론을 그 핵심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그의 존재론과 그것이 예술 이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함의, 그 철학적 일관성의 과정을 추적하는 하나의 이론적 지침서가 될수 있길 기대한다.

존재의 일의성이 그리는 세계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들이 분간 불가능한 세계
잠재적 차원에서든 현실적 차원에서든 그 자체로 실재하는 세계
분명히 하나이지만 또한 분명히 다수이기도 한 세계
잠재적 차원에서든 현실적 차원에서든 그 자체로 완벽하게 결정된 세계



*** 이 도식 외에 다음 책에서 추출한 2~3개 도식들을 더 배치해서 서론 구성 예정_ [박정태. (2019) 철학자 들뢰즈, 화가 베이컨을 말한다.]

제1장: 내재적 생성의 구조: 들뢰즈의 생명론적 존재론

“Being is difference and neither the immutable nor the indifferent, or the contradiction, which is merely a false movement.”

“We will say of pure immanence that it is A LIFE, and nothing else”
- Gilles Deleuze.

1.1. 존재론적 기초: 내재적 존재의 구조

들뢰즈의 역동적 생명주의에 대한 고찰은 그 핵심적인 형이상학적 원리들을 면밀히 탐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모든 생명에 내재하는 그 본연적 힘들의 현현으로서 예술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서구의 전통 철학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그 존재론적 토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존재의 일의성'과 '내재성의 평면'이라는 두 개의 상호연관된 개념에 주목하여 내재적 존재라는 개념의 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개념들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혹은 더 중심적인 개념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생성의 과정과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들뢰즈 존재론의 필수 조건이 되는 핵심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의 논의는 주로 들뢰즈의 저서, 『차이와 반복』, 『순수 내재성: 생명에 관한 에세이들』, 그리고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여 전개된다.¹ 본 절에서 다룰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두 개념들이 어떻게, 단일하지만 위계없는 일관된 토대로서의 실재라는 개념구성의 틀을 마련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토대에서 차이(의 과정)은/는 어떻게 단지 일탈 혹은 벗어남이 아닌 본질적이고 창조적인 요소로 기능하는가?

1.1.1. 보편적인 존재론적 원리로서의 존재의 일의성

“With univocity, there are no longer higher and lower terms, primary and secondary senses, but only one and the same voice for the multiple forms of a single being”
- Gilles Deleuze.

¹ Deleuze, G. (2001). *Difference and Repetition* (P. Patton, Trans.). Continuum; Deleuze, G. (2005); *Pure Immanence: Essays on A Life* (A. Boyman, Trans.). Zone Books; Deleuze, G & Guattari, F. (1994). *What Is Philosophy?* (H. Tomlinson & G. Burchell, Trans.). Columbia University Press.

존재의 일의성은 들뢰즈의 혁신적인 존재론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다양한 존재들로 이루어진 세계 앞에서 모든 존재가 일의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어떻게 오랫동안 확립되어온 서구의 전통 형이상학적인 토대를 뒤집는 설정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이 탐구의 여정을 시작해보자.

들뢰즈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존재라는 것이 단일하고 일관된 하나의 의미로 표현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존재들간의 질적 차이 혹은 기존에 확립된 계층적 지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존재들을 유사한 것들로 묶어 혹은 위계질서를 도입하여 이해하는 전통적인 관점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플라톤의 형상이나 초월적인 신과 같은 존재들은 다른 존재들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우월하거나 혹은 다른 존재들의 실현에 있어 그 궁극적인 근거로 간주된다. 하지만 들뢰즈는 존재를 이해함에 있어 이러한 계층적 관점을 철저히 거부하고, 일종의 평평한 존재론을 확립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의 일의성이라는 개념의 보편적인 적용이 어떻게 모든 존재를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 환원시키지 않는지에 대해 우선 물어야 한다. 이 물음의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일의성을 동일성이나 동질성의 차원에서의 일의성이 아닌 차이의 차원에서의 일의성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존재는 하나이지만, 그것은 차이의 무한한 다양성을 통해 나타난다. 들뢰즈는, “오직 단 하나의 존재론적 명제만이 있었을 뿐이다: 즉 존재는 일의적이다. 오직 단 하나의 존재론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것은 바로 존재에게 단 하나의 목소리만을 부여했던, 던스 스코투스(Duns Scotus)의 존재론”이라고 역설한다.² 이것은 존재(라는 것)의 행위가 모든 현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즉, 돌이든지, 생각이든지, 감정이든지, 또는 우주적 사건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일의성을 각각 단독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다. 그 어떤 존재도 근본적으로 '더 실재적'이거나 '더 높은 차원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존재의 일의성이란, 개별적인 차이들은 그 안에 내포하지만, 이러한 차이들은 동일한 어떤 본질을 공유하지도 않고 일의성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바꾸지도 않는다.³ 다시말해, 일의성은 존재가 하나임을 상정하지만, 이 일의성은 차이를 그 밑에 포섭하는 정적인 동일성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구별과 구분이 존재에 내재된 동적이고 분화된 어떤 통일성이다. 그는 “존재는 차이이며, 불변적인 것도, 무관심한 것도, 모순도 아니다—이들은 단지 거짓된 운동일 뿐이다”라고 말한다.”⁴

들뢰즈의 이러한 관점은 스피노자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스피노자는 던스 스코투스와 마찬가지로, 단일하고 무한한 ‘실체’라는 개념을 상정한다. 스피노자의 ‘신 또는 자연’이라는 개념은 —들뢰즈 존재론의 또하나의 핵심 개념인 내재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² Deleuze, G. (2001). *Difference and Repetition* (P. Patton, Trans.). Continuum. p. 35. 중세 철학자 던스 스코투스는 존재는 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질적 차이의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개념이라는 주장으로 유명하다.

³ Ibid., p. 36.

⁴ Constantin V. Boundas (Ed.), (2006). *The Deleuze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p. 119.

있는 것으로서— 그 속성들과 양식들을 통해 다른 외부적인 혹은 선행하는 매개없이 이러한 실체를 곧바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⁵ 스피노자는, 모든 현상이 단일한 실체의 내재적 표현들로 이루어진 우주를 상정하며, 이들 간에는 존재론적 우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잣대나 원리가 존재하지 않은 평평한 존재론을 설파한다. 이는 들뢰즈가 존재에 대해, 어떠한 숨겨진 영역도, 숭고한 초안도, 혹은 초월적 중재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들뢰즈에게 존재란, 스스로 이미 충분하며 내재적이며 오직 차이를 통해서만 표현되는 그 어떤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의적 존재라는 개념은 실재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실마리를 던져주는가? 그것은, 현상과 사물을 이해하는데 있어 고정된 정체성에 기반을 둔 어떤 정적인 틀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그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는 새로움을 생성하는 지속적인 차이의 역동적인 과정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재적 관점은 모든 현상을 그 어떤 초월적 매개없이 동등한 존재론적 기반 위에 위치시킨다. 또한 단일하고 분열되지 않은 존재의 평면에 대한 이러한 설정은, 차이의 발생 방식과 외부적 기원/매개없이 어떻게 새로운 것이 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필연적으로 제기하고, 이러한 물음은 들뢰즈 철학에 있어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의 관계, 생성을 추동하는 그 역동적인 메커니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1.1.2. 보편적 존재론적 기반으로서의 내재성의 평면

“Concepts are like multiple waves, rising and falling, but the plane of immanence is the single wave that rolls them up and unrolls them”
- Gilles Deleuze.

앞에서 존재의 일의성은 평평하고 비계층적인 존재론적 원리로 확립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수많은 차이들, 즉 단일한 존재의 다양한 표현들은 어디에서 혹은 어떤 차원에서 발생하는가?

들뢰즈는 이 과정을 '내재성의 평면'이라는 개념 속에 위치시킨다. 이 평면은 모든 존재의 무매개적인, 즉 조건 없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보편적인 존재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평면은 일의적인 존재가 자신의 무한한 차이들을 드러내는 토대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내재성의 평면(plane of immanence)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초월성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존재들의 근거 혹은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우선 이 평면은 미리 존재하고 있는 비활성적인 배경이나 혹은 어떤 비어있는 공허한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힘들과 관계들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장—들뢰즈와 가타리가 “혼란의 단면”이라고 묘사한 것—으로서, 강렬한 차이들과 잠재력들의 끊임없는 다중성을

⁵ Parr, A. (Ed.). (2010). *The Deleuze Dictionary Revised Edi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p. 2.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포함하는 것이다.⁶ 들뢰즈에 따르면, 철학의 과제는 이 평면을 ‘레이아웃’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평면은 “철학의 절대적 기반, 즉 그 땅이나 탈영토화, 철학이 그것의 개념들을 창조하는 기반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⁷ 이러한 설명은 어떤 면에서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평면은 사유의 기반/근거이지만 그래서 개념의 가능 조건으로서 개념보다 선행하는 존재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개념 형성의 과정을 통해 사유에 의해 구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진적인 내재성의 개념은, 실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서구 전통 형이상학적 사유와 비교되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관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개념은 기존에 확립된 조화로움, 목적론적 사유, 또는 존재를 지배하거나 중재하는 어떠한 류의 외부적/초월적 원리를 거부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관계(**relations**)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to**)’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안에(**in**)’ 존재한다.⁸ 따라서 모든 생성의 과정과 개체화의 과정은, 어떤 신성한 창조자라든가, 미리 결정된 디자인, 혹은 고정된 본질과는 무관하게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이 단일한 영역의 장 안에서, 내재적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욕망이라는 것은 결핍이나 외부적 쾌락의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재성의 평면에서의 한 실험의 과정”이며, 이 평면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⁹ 이러한 점은 이 평면의 본질적이고 내적인 동력과 새로움을 생성하는 그 지속적인 역량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내재성의 평면은 또한 들뢰즈와 가타리가 “일관성의 평면(**plane of consistency**)”으로 규정하는 “기관 없는 몸(**BwO**)”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기관없는 몸은, 순수한 강도 그 자체가 자유롭게 순환운동을 하는 어떤 개념적 —형성되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으며, 계층화되지 않은— 장이다.¹⁰ 내재성의 장으로서, 그것은 욕망이 분화되지 않은 채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장소이자, 새로운 연결들과 생성들이 제한 없이 생겨나는 무제약적인 창조의 공간을 나타낸다. 이 공간을 토대로, 생명력은 고정된 조직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내재성에 대한 이해는 실재를 지속적인 실험과 변형의 과정으로 상정하는데, 이 과정은 평면이 제공하는 잠재적인 (것들의) 저장소로부터 새로운 형태를 끊임없이 실현시키는 비인격적이고 본래적인 욕망에 의해 추진된다.

⁶ Parr, A. (Ed.). (2010). *The Deleuze Dictionary Revised Edi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p. 129.

⁷ Deleuze, G & Guattari, F. (1994). *What Is Philosophy?* (H. Tomlinson & G. Burchell, Trans.). Columbia University Press. p. 34.

⁸ Parr, A. (Ed.). (2010). *The Deleuze Dictionary Revised Edi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p. 128.

⁹ Ibid., p. 66.

¹⁰ Ibid., p. 37.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존재의 일의성과 내재성의 평면 사이의 상호 관계를 좀 더 들여다 보고, 그것이 어떻게 들뢰즈의 내재적 존재론의 기초적 핵심틀을 구성하면서 나아가 전체 시스템이 의존하는 토대를 형성하는지 알아보자.

1.1.3. 존재의 일의성과 내재성의 평면 간의 상호관계

들뢰즈의 존재의 일의성과 내재성의 평면이라는 개념은 서로가 서로를 구성적 조건으로 하는, 즉 상호 구성적인 개념들이며, 이 둘은 그의 존재론적 구조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존재의 일의성이 내재성의 평면을 그 유일한 표현의 장으로서 필요로 하며 —다시말해 필요의 영역으로 그것을 끌어들이며, 내재성의 평면은 일의적 존재가 자신의 무한한 차이들을 나타나게 하는 토대로 기능한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의적 존재는 하나의 균질된 덩어리 혹은 분화되지 않은 것들의 혼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들뢰즈는 여기에서 다름아닌 차이의 일의성을 강조하는데, “존재는 그것이 말해지는 모든 것에 대해 단일하고 동일한 의미로 말해지지만, 그것이 말해지는 대상은 모두 다르다: 즉 그것은 차이에 대해 말해진다”¹¹라고 말한다. 이는 존재가 모든 현상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각각의 현상들은 고유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성의 평면은 강도높은 집중적인 차이의 무한한 다중성들로 가득 찬 역동적인 영역이다. 이는 분화의 조건이며, 순수한 잠재력이 구체적인 형태로 현실화되는 비옥한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념쌍은 들뢰즈의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실재에 대한 관점을 그 토대에서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의적인 내재성의 평면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종종 초월적인 세계나 고정된 본질을 실재의 궁극적인 근원으로 상정하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대한 분명한 도전적인 설정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들뢰즈는 이를 통해, 모든 생성, 분화, 현실화의 과정들이 이 단일하고 일관된 영역 내에서 내재적으로 전개된다는 급진적인 내재론적 관점의 형이상학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의성과 내재성의 평면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는 들뢰즈 철학에서 생성이라는 메커니즘이 확립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존재가 일의적이라면, 차이는 동일성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선하는 주요 원리가 된다. 평면은 이러한 일차적 원리로서의 차이가 끊임없이 분화되고 현실화되는 공간을 제공하여, 실재를 조직하고 지배하는 잠재태/현실태의 역학을 구성해낸다. 그것은 생산적이고 자발적으로 조직화하는 연속체로서, 그 안에서는 “식별 가능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물은 순수한 차이들의 내재적 선형 영역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완전한 것으로 상정된다.”¹² 이러한 방식으로 이 두 개념쌍은, 일관되고 비계층적인 실재 개념을 확립하여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¹¹ Deleuze, G. (2001). *Difference and Repetition* (P. Patton, Trans.). Continuum, p. 36.

¹² Parr, A. (Ed.). (2010). *The Deleuze Dictionary Revised Edi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p. 129.

공리에 도전하면서, 예술을 생명에 내재한 본연적인 역동성과 우주의 창조적인 흐름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의 표현으로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 섹션은, 존재의 일의성과 내재성의 평면이라는 두 개념쌍을 토대로 들뢰즈의 일관되고 비계층적인 실재 개념을 소개하면서, 들뢰즈의 내재적 생성론의 존재론적 기본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기반을 토대로 이제, 우리의 탐구는 이 단일한 기반 위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과정, 특히 생성의 시간적 결정화과정과 이를 관장하는 복잡한 잠재태/현실태의 역학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2. 과정적 역학으로서의 시간적 결정화

들뢰즈의 내재적 존재론의 단일하고 비계층적인 기초를 확립한 본 연구는 이제 그 역동성의 핵심, 즉 생성 과정의 전개와 그것과 시간과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번 절에서는 전통적인 정적 존재의 개념에서 벗어난 들뢰즈의 생성 개념을 소개하고, 시간이 수동적인 측정 단위가 아닌 변화의 능동적인 조건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시간에 대한 이러한 재개념화는, 들뢰즈가 재해석하고 확장한 베르그송의 지속 시간 철학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순수한 잠재력의 저장소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를 실현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시간과 실재를 재개념화한다. 이 절에서는 잠재태/현실태의 구별, 크리스탈 이미지, 그리고 시간의 세 가지 종합의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주로 들뢰즈의 《베르그송주의》, 《차이와 반복》, 그리고 그의 영화에 관한 저서인 《영화 1: 운동-이미지》와 《영화 2: 시간-이미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¹³ 본 절에서 다뤄질 개념들이 펼쳐보이는 영역은 들뢰즈의 생명주의적 사유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데, 이는 예술이 생명의 힘을 표현하고 현실화하는 곳이 바로 이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이기 때문이다.

1.2.1. 존재(Being)에서 생성(Becoming)으로

“Duration is the form of interiority, the internal form of time, as opposed to the external form of time which is space”
– Gilles Deleuze.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거로 내재성의 단일한 평면을 거쳐 우리의 논의는 이제 존재에 대한 다소 정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생성의 역동적인 전개과정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이러한

¹³ Deleuze, G. (1988). *Bergsonism*. (H. Tomlinson & B. Habberjam, Trans.). Zone Books; Deleuze, G. (2001). *Difference and Repetition*. (P. Patton, Trans.). Continuum; Deleuze, G. (1986). *Cinema 1: The Movement-Image* (H. Tomlinson & B. Habberjam,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Deleuze, G. (1989). *Cinema 2: The Time-Image* (H. Tomlinson & R. Galeta,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전환은 들뢰즈의 형이상학이 고정된 실체와 본질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철학적 관점에서 단호하게 벗어나려한 것과 어떤 의미에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급진적인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으로 실재를 이해하는 데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종종 존재들들에 대해, 변화를 겪지만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실체로 여기며, 시간이란 이러한 변화를 외부에서 측정하는 척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들뢰즈는 존재와 시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급진적으로 뒤집는다. 그에게 존재들은 좌표상의 고정된 지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형의 과정들이며,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들) 그 자체이다. 즉, 변화라는 것은 존재에 우연적으로 딸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운동은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모든 샷이 고정되고, 공간적이며, 비운동적인 것일지라도, 그 샷이 영화가 되게 하는 수단, 즉 영사기가 하나의 운동-이미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¹⁴ 변화에 대한 이러한 급진적인 재개념화는 실재가 끊임없는 흐름, 즉 새로운 것이 영속적으로 생성되는 하나의 역동적인 전개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학에서 시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들뢰즈에게 있어, 시간은 사건들이 펼쳐지는 어떤 외부적인 그릇도, 개별적인 순간들의 선형적인 이어짐도 아니다. 오히려 시간은 운동과 변화의 조건이자,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인 내적 힘이다. 이러한 시간 개념은, 종종 공간화되고 양적 분할될 수 있는 것으로 시간을 상정하는 고전 물리학과는 완전히 다른 이해이다. 들뢰즈는 베르그송을 따라, 시간을 ‘지속(duration)’으로, 즉 연속적이고 이질적이며 분할될 수 없는 질적 다중성으로 규정한다¹⁵ 베르그송의 지속은 연속적이면서도 비균질적인 질적 전개로, 들뢰즈의 모든 ‘생성(들)’의 개념적 모델로 기능한다.¹⁶ 그것은 “그 본성을 바꾸지 않고는 분할될 수 없는’ 시간 그 자체이다.”¹⁷ 이렇게 생성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라면, 그것과 관련하여 주체성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들뢰즈는 이에 대해서도 역시, 주체성이 고정되어있거나, 미리 주어져있는 토대가 아니라, 끊임없는 이러한 생성 과정의 결과물,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나’라는 것은 안정적인 어떤 통합의 중심이 아니라, 실재의 시간적인 종합에서 나타나게 되는 역동적이고, 종종 분열되어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고정된 주체라는 개념으로부터의 해방은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로 영속적인 새로움과 순수한 긍정의 세계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 들뢰즈에 있어 사유라는 것은 미리 형성되어 있는 주체의

¹⁴ Dorothea E. Olkowski. (2021). *Deleuze, Bergson, Merleau-Ponty: The Logic and Pragmatics of Creation, Affective Life, and Percep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p. 83.

¹⁵ Ibid., p. 71.

¹⁶ <https://plato.stanford.edu/entries/bergson/>. Daniel Smith, John Protevi, Daniela Voss, “Gilles Deleuz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irst published Fri May 23, 2008; substantive revision Fri Jun 3, 2022. Sections 2, 3.1, 3.2, 5.

¹⁷ Dorothea E. Olkowski. (2021). *Deleuze, Bergson, Merleau-Ponty: The Logic and Pragmatics of Creation, Affective Life, and Perception*. p. 69.

자연스러운 행위의 한 형태라기 보다는, 분열된 주체에게 사유를 강요하는 저 거대한 '차이'와의 강제적인 만남이다.¹⁸ 시간과 생성에 대한 이러한 급진적인 개념적 재구성은, 사유 또한 정적인 범주에서 해방시켜, 항상 움직이고 있고, 항상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있고, 항상 차이를 긍정하고 있는 실재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재정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섹션에서는 들뢰즈의 사상에 등장하는 실재의 근본적인 역동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존재론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정적인 존재(**being**)에서부터 끊임없는 생성(**becoming**)으로의 급진적인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을 단순한 측정 단위가 아닌 변화를 위한 조건으로 재구성한 것은 들뢰즈의 복잡한 잠재태/현실태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 역학은 끊임없이 펼쳐지는 복잡한 시간적 구조를 제시한다.

1.2.2. 시간적 구조로서의 잠재태/현실태의 구분

“The virtual is not something that lacks reality, but something which is
fully real, albeit in a different mode of reality from the actual”
– Gilles Deleuze.

실재를 끊임없는 생성의 과정으로서, 시간을 단순한 측정 단위가 아닌 능동적인 조건으로 재정립한 후, 이제 우리는 이 역동적인 전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물음은 들뢰즈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전제로 한다. 즉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라는 개념적 구별이 그것이다. 이 구별은 단순한 의미론적 구별이라기 보다는, 들뢰즈 존재론의 시간적 틀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 장치이며, 그것을 통해 시간은 비로소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구조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

들뢰즈는 현실태와 대조되는 것으로 잠재적인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왜 이러한 구분이 시간의 역동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일까? 이 중요한 구별을 설명함에 있어, 들뢰즈는 또 다른 개념적 구분을 시도한다. 즉 그는 잠재태(**the virtual**)을 전통적인 가능태(**the possible**)의 개념에서 분리한다.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사유에 있어서, 가능태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청사진이거나 혹은 단지 실재성(**reality**)이 결여되어 있지만 유사(**resemblance**)와 제한의 과정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된다. 반면에 잠재적인 것이란 “온전히 그 자체로 실재적(**real**)이며, 창세기에서 일어난 일은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된(**actualized**) 것”이다.¹⁹ 잠재적인 것은 순수한 차이들,

¹⁸ Dorothea E. Olkowski. (2021). *Deleuze, Bergson, Merleau-Ponty: The Logic and Pragmatics of Creation, Affective Life, and Perception*. p. 19; Deleuze, G. (2001). *Difference and Repetition* (P. Patton, Trans.). Continuum, p. xv.

¹⁹ <https://plato.stanford.edu/entries/deleuze/>. Daniel Smith, John Protevi, Daniela Voss, “Gilles Deleuz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irst published Fri May 23, 2008; substantive revision Fri Jun 3, 2022. Section 2.

잠재태들, 그리고 진정으로 존재하는 단독성의 영역이며, 유사가 아니라 창조의 과정을 통해 현실화 될 수 있는 “차이적 구성(differential makeup)”이다.²⁰ 현실적인 것은 이 잠재적 저장소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구체적이고 확장된 형태이며, 그것의 내재된 잠재태들의 특별한 선택이자 현실화이다. 현실화된 사건(actualized event)이란 잠재적인 관계들의 창조적 산물인데, 그것은 그 관계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 혹은 관계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과는 결코 유사하지 않은 것들이다. 예를 들면, 어떤 생명체를 현실화하는 유전자들, 그리고 외부의 다른 개체들을 비롯하여 주변 지형적, 기후적 환경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들을 생각해 보라. 이 관계들의 역학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체는 결코 기존에 미리 존재하던 청사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들뢰즈의 이러한 구분은 베르그송의 시간철학, 특히 순수한 기억과 기억의 원뿔이라는 개념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베르그송에게 있어, 과거 전체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지속되며, 연속적이고 질적 다중성으로서의 현실태인 현재와 함께 공존한다. 이러한 “순수한 과거”는 단지 일련의 지나간 순간들이 아니라, 현재에 끊임없이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 모든 현재를 새롭게 만드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힘이다. 들뢰즈는 이러한 베르그송의 통찰을 이어받아 “과거 전체는 새로운 현재와 공존한다”고 주장한다.²¹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이란, 개별적인 순간들의 선형적인 진행이 아니라, 잠재적인 과거가 현실태인 현재의 매순간마다 부단히 활동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존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우리의 시간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잠재태와 현실태의 구분은, 시간이 비선형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임을 시사하고, 그 과정이 단순한 현실화가 아니라 분화(혹은 차이화)라는 창조적인 행위라는 것을 드러낸다. 잠재적인 것에는 '선택되지 않은 모든 길(roads not taken)', 즉 사물들 안에 내재된 변형의 잠재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현실태는 '선택된 특정한 길(roads chosen)'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²² 잠재적 저장소로부터 끊임없이 진행되는 이러한 현실화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생산해낸다. 들뢰즈는 “그 어느 것도, 현실태의 철저하게 순수한 정지 상태나 잠재태의 철저하게 순수한 차이적인 분산(differential distribution)을 예시할 수 없다. 오히려 자연적 또는 세속적 과정들이란 항상 그리고 오직 현실화의 과정들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잠재적 다중성에 의해 구조화되고, 자신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현실태의 어떤 상태를 지향하고 있는 무수한 현실화의 과정들이다”라고 설명한다.²³ 이러한 의미에서, 실재는 영속적인 변화의 흐름 안에 있으며, 잠재력과 현시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항상 생성되고 있으며, 결코 확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²⁰ Ibid.

²¹ Deleuze, G. (2001). *Difference and Repetition* (P. Patton, Trans.). Continuum, p. 81.

²² <https://plato.stanford.edu/entries/deleuze/>. Daniel Smith, John Protevi, Daniela Voss, “Gilles Deleuz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irst published Fri May 23, 2008; substantive revision Fri Jun 3, 2022. Section 4.3.

²³ Ibid., Section 4.2.

이 섹션에서는 들뢰즈의 역동적 존재론에 대한 그 시간적인 틀을 논의해 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재태/현실태의 구분을 근본적인 시간적 구조로 제시했는데, 이제 다음으로 이 역동적인 과정이, 잠재태와 현실태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구현하는 개념적 현상으로서의 크리스탈-이미지와 시간적 결정화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탐구해 보기로 한다.

1.2.3. 크리스탈-이미지와 시간적 결정화

“The crystal-image is the indiscernibility of the real and the imaginary, of the actual and the virtual. It is a circuit of exchange between the actual image and its virtual image, or between two actual images, one of which is the past and the other the present.”
— Gilles Deleuze.

시간적인 틀로서 잠재태/현실태의 구별의 추상적인 특성을 탐구한 후, 이제 우리는 이 역동적인 관계의 —여전히 어느 정도는 개념적이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현시인 들뢰즈의 크리스탈-이미지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이미지는 단순히 시간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직접적으로 제시(presentation)하는 역할을 하며, 시간적인 결정화 과정의 본질을 드러낸다.²⁴

크리스탈-이미지는 들뢰즈의 영화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영화 분석 그 이상을 넘어 그의 심오한 시간적 역학을 명확히 구성함에 있어 어떤 미학적 비유로서의 역할을 한다. 크리스탈-이미지는 ‘시간의 직접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며, 그 이미지 안에서는 현실태와 잠재태가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서로를 영원히 반영하며 분간(식별)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식별 불가능성은 기존의 관습적인 시간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크리스탈-이미지 안에서, 현재는 사라진 과거를 따라 묻혀버리는 단순한 통과 지점이 아니고, 잠재적 과거는 현실태인 현재와 공존하며, 그것을 반영하고 그와 동시에 그것에 의해 반영된다. 이러한 점은 어떤 시간적 순환회로를 만들어 내는데, 그 안에서 “현실태인 현재는 미래 회상의 대상이 아니라, 지나간 옛 현재의 기억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²⁵ 따라서 이미지는 내러티브의 진행이나 연대기적 순서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 순수하고 비선형적인 형식 안에서, 시간이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장소가 된다.

이러한 식별 불가능성은, 잠재태가 끊임없이 새로운 형식들을 생성함에 따라 현실화의 지속적인 운동을 동시에 포착함으로써, 결국 시간의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²⁴ Deleuze, G. (1989). *Cinema 2: The Time-Image* (H. Tomlinson & R. Galeta,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70.

²⁵ Dorothea E. Olkowski. (2021). *Deleuze, Bergson, Merleau-Ponty: The Logic and Pragmatics of Creation, Affective Life, and Perception*. p. 113.

크리스탈-이미지는 정적인 묘사가 아니라, 시간의 본질적인 역량과 힘이, 어떤 단순한 반응적 행위 혹은 관습적인 행위의 모든 가능성을 초월하여 드러나게 되는 하나의 역동적인 과정, 즉 '시간적인 결정화'이다.²⁶ 이 과정은 감각-운동 연결의 근본적인 파열을 시사하며, '탈구된 시간'으로 기능하여 습관적인 지각을 방해한다.²⁷ '순수한 시각적 및 청각적 상황들'로 구성되었기에 이 이미지는 잠재적이며 동시에 실재적이지만, 균질한 공간성 안에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이미지는 “결정화되고, 고정화되어, 지각, 행동, 사유의 감각-운동 연결을 끊는 역할을 한다.”²⁸ 이러한 강압적인 방해 혹은 단절은, 급증하는 진동 패턴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패턴 안에서 현실태를 강력하게 대체하는 '감각의 블록'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비사유적인 신체(non-thinking body)'가 이전에는 은폐되었던 것을 포착할 수 있도록 강요한다.²⁹

이렇듯, 시간적인 결정화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잠재태와 현실태가 끊임없이 상호교환되는 지속적인 흐름이며, 잠재태의 비물질적 잠재력이 현실태의 구체적인 현시와 만나 실재를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어떤 상호 침투적인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선형적 내러티브와 재현적 논리를 넘어서서, 시간의 본질적인 역동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을 윤리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크리스탈-이미지는, 우주를, 잠재태의 현실화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움을 생성하는, 힘들과 잠재력의 자기 조직화 흐름으로 상징하는 들뢰즈의 생명주의적 존재론에 대한 어떤 미학적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³⁰

이 섹션에서는 들뢰즈의 시간 철학이 작동하는 개념적 예를 제시했다. 즉 크리스탈-이미지 개념을 통해 그 시간적 역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을 소개했다. 이제 이 논의를, 끊임없는 시간적 전개/펼쳐짐을 위한 조건을 설명하는 세 가지 종합을 통해, 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뢰즈의 시간 철학에 대한 탐구로 이어가보기로 한다.

1.2.4. 시간의 세 가지 종합

“The present is not something given, but is constituted by a passive synthesis of retention and anticipation, a kind of internal contraction of instants”

“The past is not a former present, but the pure form of that which

²⁶ Ibid., p. 93.

²⁷ Deleuze, G. (1989). *Cinema 2: The Time-Image*, p. 90.

²⁸ Dorothea E. Olkowski. (2021). *Deleuze, Bergson, Merleau-Ponty: The Logic and Pragmatics of Creation, Affective Life, and Perception*. p. 90.

²⁹ Ibid., p.90-91.

³⁰ <https://plato.stanford.edu/entries/deleuze/>. Daniel Smith, John Protevi, Daniela Voss, “Gilles Deleuz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irst published Fri May 23, 2008; substantive revision Fri Jun 3, 2022. Section 3.1.

has been, that which is preserved in, eternally, independently of any present that it might have been or that it might have represented”

“The present is the repeater, the past is repetition, but the future is that which is repeated”
– G. Deleuze.

크리스탈-이미지를 통한 시간 역학에 대한 탐구에 뒤이어, 시간 개념에 대한 보다 추상적이지만 조금더 세부적인 이해를 위해 들뢰즈의 세 가지 시간의 수동적 종합들에 대해 알아보자. 이 종합들은 연대기적 단계들이 아니라, 시간의 역동적이고 비선형적인 구조를 구성하면서 서로 공존하는 존재론적 작동/차원들이다. 이번 섹션에서는 습관, 기억, 미래라는 세 가지 종합들이 어떻게 집합적으로 함께 새로움과 차이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들뢰즈의 생명주의적 존재론에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들뢰즈는 세 가지 수동적 종합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종합들은 반복과 시간의 구성에 대해 각각 고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³¹

첫번째 종합: 습관 (살아있는 현재). 이 종합은 '수축'이라는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데, 이전의 순간들을 '살아있는, 또는 경험된 현재' 내에 유지시킨다.³² 이것은 시간에 대한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경험을 나타내며, 여기에서 과거와 미래는 현재의 전개에 흡수되어 현재적인 차원들로서 존재한다. 여기에서 반복은 습관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형성하며, 요소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회귀로부터 새로운 차이와 일반성이 등장할 수 있게 한다. 이 수동적 종합은 근본적인 '삶의 습관', 즉 현재 순간과 세계의 연속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구성한다. 그것은 쾌락 원리에 선행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여 기대들을 결합하고 쾌락의 조건을 확립한다.³³

두번째 종합: 기억(순수 과거). 베르그송의 순수 기억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이 종합은 '시간 속에 순수한 과거'를 구성하며, 역설적으로 현재를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한다.³⁴ 과거에 대한 다소 급진적인 이러한 생각은, 과거를 이미 지나간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였던 순간에 그 현재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의 전체로서 새로운 현재와 공존한다.³⁵ 이 “순수한 과거 일반의 요소”는 스쳐 지나가는 현재에 앞서서 존재한다.³⁶ 과거가 다양한 정도의 이완과 수축을 통해 잠재적으로 지속되는 베르그송의 기억의 원뿔은, 들뢰즈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간적 다중성을 나타내는 모델로 기능한다.³⁷

³¹ Deleuze, G. (2001). *Difference and Repetition* (P. Patton, Trans.). Continuum, pp. 70–110.

³² Ibid., p. 70.

³³ Ibid., p. 74.

³⁴ Ibid., p. 80.

³⁵ Ibid., p. 81.

³⁶ Ibid., p. 82.

³⁷ Dorothea E. Olkowski. (2021). *Deleuze, Bergson, Merleau-Ponty: The Logic and Pragmatics of Creation, Affective Life, and Perception*. p. 82.

이러한 종합에서 반복은, “다양한 공존의 수준들의 전체”를 포함시키며, 그 전체가 다양한 계층들 간의 구별을 포용함에 따라 차이를 함께 작동시킨다.³⁸ 이것은 “과거의 존재”에서 펼쳐지는 일종의 ‘영적’ 반복으로서, 그 반복은 “순수한 과거의 파편”인 “잠재적 대상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³⁹ 생명의 힘인 에로스는, “순수한 과거에서 잠재적 대상들을 떼어내어, 그것들이 경험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한다.”⁴⁰

세번째 종합: 미래/기초 (시간의 공허한 형식/영원 회귀). 이것은 가장 급진적인 종합으로서, 시간은 더 이상 운동에 종속되지 않고 “공허하고 순수한 형식으로 제시”된다.⁴¹ 이것은 “시간이 탈구된”⁴² 순간으로, 시작과 끝이 만나지 않고, “중간 휴지(caesura)의 작동 안에서 불평등한 것들의 순수한 형식적 분포”로 정의된다.⁴³ 이 종합은 “제3의 반복”,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 지속적인 창조를 보장하는 “과잉에 의한 반복”을 구성한다.⁴⁴ 그것은 또한 그 “비밀스럽고 난해한 진리” 안에서 니체의 영원 회귀를 구현하며, “오직 새로운 것에만” 영향을 미치고 조건(conditions)들과 동인(agents)들을 거부하며, “생산물의 자율성”을 확립한다.⁴⁵ 이 운동은, 기억의 “근원적 토대(ground)”를 넘어 “근원없음(groundlessness)”⁴⁶, “아직-오지-않았지만-올-것의 회귀”를 야기시키는 “보편적인 근원없음(universal ungrounding)”으로 확장된다.⁴⁷ 이 마지막 종합은 “질서, 연속체의 총체성, 시간의 최종 종결”을 보장하며, “반복을 그것에서부터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차이를 어떤 변종으로 포함하는 것도 아니라, ‘절대적으로 다른 것’의 생산 혹은 그에 대한 사유로 만든다.”⁴⁸

이 세 가지 종합은 각각 시간의 연쇄적인 단계들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존재론적 차원들이다. 각 차원은 동시에 작동하여 시간의 역동적인 구조를 형성하면서, 함께 집합적으로 새로움과 차이를 생산한다. 차이의 회귀로서 영원 회귀를 구현하고 있는 세번째 종합은 지속적인 창조를 보장하고 동일한 것으로의 그 어떠한 귀환도 가로막는다. 살아있는 현재에서 순수 과거까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도 없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시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체화(individuation) 과정을 탐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다음 절에서 이 끊임없는 흐름에서 단독성들이 어떻게 출현할 수 있는지, 그 작동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것이다.

³⁸ Deleuze, G. (2001). *Difference and Repetition*. p. 84.

³⁹ Ibid., p. 101.

⁴⁰ Ibid., p. 103.

⁴¹ Ibid., p. 88.

⁴² Ibid., p. 88.

⁴³ Ibid., p. 89.

⁴⁴ Ibid., p. 90.

⁴⁵ Ibid., p. 90.

⁴⁶ Ibid., p. 91.

⁴⁷ Ibid., p. 91.

⁴⁸ Ibid., p. 94.

1.3. 작동 메커니즘으로서의 개체화 과정

“A multiplicity is not made of elements, but of lines and dimensions
that are irreducible to one another. It is not made of units but of relations.”
– G. Deleuze.

앞 절에서 우리는 생성의 복잡한 시간적 지형과 시간의 세 가지 종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본 연구는 이러한 추상적인 원리에서 들뢰즈의 생명주의 철학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메커니즘으로 그 초점을 옮겨가려고 한다. 그것은 내재성의 평면의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잠재태와 현실태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 안에서 어떻게 단독적이고 식별 가능한 존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번 절에서는, 주요한 존재론적 레지스터(**register**)로서의 강도와 정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른바 개체화/개별화 (**individuation**) 과정의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들뢰즈와 가타리의 공동 작업인 《앙티 오이디푸스》, 《천개의 고원》을 주로 참조하여 진행된다.⁴⁹ 이번 절에서 다뤄질 중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전-개체화(**pre-individuating**)적 힘들과 감각들이, 고정된 본질이나 초월적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역동적이며 이질적인 구성체(**configurations**)들로 응집되어 개체화된 존재들을 생성하는가?

1.3.1. 존재론적 레지스터로서의 강도와 정동

“Intensity is the form of difference in, or that which is immediately
given in sensation as qualitative variation, but which
is in fact quantitative difference in its purest state”

“Affects are passages, becomings, transitions, changes in power. They
are not feelings or affections; they are what happens to us
when we encounter something, when we are affected by it”
– G. Deleuze.

강도와 정동은 들뢰즈의 개체화 과정의 핵심적 개념들이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단순한 심리적 상태나 주관적인 감정과는 구별되어 들뢰즈 존재론의 주요한 개념적 장치로서 기능하는지 알아보자.

⁴⁹ Deleuze, G. (2001). *Difference and Repetition* (P. Patton, Trans.). Continuum; Deleuze, G., & Guattari, F. (1983).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R. Hurley, M. Seem, & H. R. Lane,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B. Massumi,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들뢰즈 철학에서 강도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질적 특성이나 속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다 우주적 혹은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내재성의 평면을 가로지르는 정도의 차이, 혹은 기울기(**gradients**), 잠재력으로 표현되는 개념이다. 강도는 생성을 추진하는 순수한 날것의 차등적 힘들로 제시되며, 잠재태에서 현실태로의 전이의 전 과정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강도는 순수한 차이, ‘차이 내의 차이’”이며, 모든 확장된 질적 속성들에 선행하여 그것들을 생산하는 변형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정동 역시 들뢰즈 철학에서 보편적인 개념의 하나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비주체적(**non-subjective**)이고 전-인격적(**pre-personal**)인 능력을 일컫는다. 그것은 관습적인 의미에서의 감정 혹은 정서라기보다는, 순수한 질적 변화들, 혹은 모든 안정된 형식들이나 의식에 앞서서 존재하는, 여러 신체들과 여러 영역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순환하는 비인격적인 “행동하는 힘(**power to act**)” 또는 “행동당하는(**to be acted upon**) 힘”으로 규정된다.⁵¹ 들뢰즈와 가타리는 “정동은 감정도 아니고 애정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나감 혹은 전환 그 자체, 즉 생성들이다”라고 말한다.⁵² 그것은 의식적 지각과 개인적 감정의 기저에서 작동하면서, 전-개체적 수준에서 경험의 즉각적이고 순수한 날것의 재료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그 끊임없는 상호 작용들을 통해 내재성의 평면을 명확히 규정하는 실재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들, 즉 비유기적 생명의 “구성 재료(**stuff**)”들이다.

이러한 강도있는 힘과 정동이 개체화를 추진하는 요인들이다. 이들은 실재가 안정적이고 인식 가능한 형식들을 취하기 전에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 차등화 요인들, 그 역동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개체화란 기존에 미리 존재하는 형식을 수동적인 물질에 강제로 부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강도있는 차이들의 자기-조직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력들로 가득찬 내재성의 평면이란, 강도와 정동이 자유롭게 순환하며 서로 응집되었다 또 용해되었다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구성체들(**configurations**)을 생성해내는 장이 된다.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실재는 영속적인 변화의 흐름 안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어, 그 안에서 생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강도있는 힘의 현실화를 통해 항상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섹션에서 우리는 강도와 정동이 개체화를 관장하는 근본적인 힘인 것을 확인했다. 생성의 실질적 요소로서의 그들의 역할은 이러한 전-개체적 힘들이 어떻게 단독적이고 역동적인 개체화의 과정으로 응집되는지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개념적 기초를 제공한다.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헤시어티(**haecceities**)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⁵⁰Deleuze, G. (2001). *Difference and Repetition*, p. 222.

⁵¹Parr, A. (Ed.). (2010). *The Deleuze Dictionary Revised Edition*, p. 11.

⁵²Deleuze, G., & Guattari, F. (1994). *What Is Philosophy?* (H. Tomlinson G. Burchell, Trans.). Columbia University Press, p. 163.

1.3.2. 단독적이고 비주체적인 개체화로서의 핵시어티

강도와 정동이 개체화를 추진하는 전-인격적인 힘을 나타내었다면, 이러한 개체화가 취하는 구체적인 형태란 핵시어티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핵시어티를 규정하는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은 고정된 주체나 실체라는 기존 철학 개념들과 어떻게 다른가?

핵시어티는 거의 철학에서만 쓰이는 중요한 개념인데, 들뢰즈 철학에서 그것은 어떤 정적인 본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힘들, 정동들, 시공간적 좌표들의 어떤 단독적이고 강도있는 구성체들(configurations)로부터 생겨난 단독적이고 비주체적인 사건, 즉

“이것임/성(thisness)”을 의미하는 독특한 개념이다.⁵³

핵시어티는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 동일성(identity)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동일성이란 종종 안정적이고 고정적이며 주체 중심적인 어떤 본질을 의미한다. 반면, 핵시어티는 영향을 일으키고 영향을 받는 그 자체의 역량과 역동적인 관계들 안에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것은 안정된 동일성이 아니라 “운동의 관계들에 기반한, 그리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역량들, 분자들 혹은 입자들에 의존하는, 단독적이고 비주체적인 개체화”의 과정들이다.⁵⁴ 이러한 개념화는 고정된 자아나 미리 정해진 형식들에서 벗어나, 개체성을 역동적인 상호 작용과 정동적 역량으로 새롭게 정의되는 속성으로 상정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더 이상 주체는 존재하지 않고, 주체가 없는 역동적인 개체화”가 힘들의 역동적인 집합적 구성체(configurations)를 조직하며, “그 어떤 것도 주체적인 것은 없고, 핵시어티는 비주체적인 힘들과 효력들의 구성체들을 따라 그 형태를 취한다”고 역설한다.⁵⁵ 이는 핵시어티가 근본적으로 무언가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역량)과 그것이 생산하거나 겪게 되는 정동에 관련된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체화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건의 형태로, 즉 강도의 단독적 구성체들로서 존재하며, 영속적으로 역동적인 생성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성의 그 흐름 안에서, 일시적인 안정화 상태를 표현하며, 잠재태가 차등화된 실재로 현실화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특별하고 구체적인 시간을 핵시어티의 한 예로 생각해보자. 어느 아침 7시경의 어떤 특별한 시간은, 그 아침의 특별한 빛, 분위기, 그리고 그 시간만의 특징적인 질들의 어떤 단독적이고 강도있는 조합이다. 이 조합은 그것을 지각하는 인간 주체와는 무관하게 존재하지만, 그 주체에 영향을 끼친다. 유사하게, 어떤 풍경의 '분위기'나 특정 바람의 '질감' 역시 핵시어티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서로 상이한

⁵³Dolors Ortega Arévalo. (2012). *Deterritorialising Patriarchal Binary Oppositions: Deleuze & Guattari, Virginia Woolf, Masculinities and Film Adaptations*, PhD thesis, Universitat de Barcelona, p. 117, section 2.2.5.

⁵⁴Ibid. p. 117.

⁵⁵Deleuze, G., & Parnet, C. (1987). *Dialogues* (H. Tomlinson B. Habberjam, Trans.). Columbia University Press, p. 93.

요소들이 하나의 유일하고도 새로운 특질로 융합되는 식별/구분 불가능성의 영역—그것을 구성했던 부분들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일시적이고 강력한 구성—으로 기능한다.

지금까지, 생성의 전-개체적 힘으로서의 강도와 정동,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즉 강도있는 힘들의 역동적인 장으로부터 어떻게 단독적인 개체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헥시어티를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개체화로 이해하는 것은, 단독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더 복잡하고 이질적인 구조의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가 된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앞서 기술한 그러한 힘들의 역동적인 구성이 좀더 정확히 어떻게 생명 에너지의 발현을 위한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야 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음은, 이 개체화의 핵심 과정, 혹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적 틀에서 개체화가 일어나는 일차적인 장소로 상정되는 아상블라주 개념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의 존재론적 원리들을 기술하고 그에 기초해 그의 생명주의적 예술론을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 아상블라주 개념의 중요성에 좀더 무게를 싣고자, 그것에 관련된 논의는 별도의 절, 즉 제2절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1.4. 창조적 종합: 차등적 반복과 내재적 생산

정동의 강도성, 그리고 헥시어티의 역동적인 개체화를 중심으로, 들뢰즈의 생명주의적 존재론의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본 후, 이제 본 연구는 그 범위를 좀더 확장하여 그의 생명주의적 존재론을 관통하는, 우주적 생산의 지배적이고 포괄적인 원리에 대해 고찰해보려고 한다. 이는 내재적 생산의 논리적 토대를 구축하는 차등적 반복(**differential repetition**)의 창조적 종합의 원리에 관한 질문이 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절에서는 단순한 이탈(**deviation**) 혹은 변형(**transformation**)과는 구별되는 차이(**difference**)라는 것이 어떻게 모든 생성의 일차적이고 능동적인 원동력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들뢰즈 형이상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들뢰즈식 재개념화 과정에서, 반복이란 동일한 것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논의에서 급진적인 긍정성의 원리로서 영원 회귀와, 내재적 생산을 구현하는 강도와 변형의 단독적인 지점으로서의 ‘사건’의 논리에 대해 상세하게 다뤄볼 것이다. 이번 절의 논의는 주로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과 《순수 내재성: 삶에 대한 에세이》에 수록된 에세이에 기초해서 진행될 것이다.⁵⁶ 들뢰즈는 창조성을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과정, 실재의 차등적 흐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와 가능성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⁵⁶ Deleuze, G. (2001). *Difference and Repetition* (P. Patton, Trans.). Continuum; Deleuze, G. (2005). *Pure Immanence: Essays on A Life* (A. Boyman, Trans.). Zone Books.

들뢰즈의 내재적 생성론의 기본 구조에 대해 물었던 이번 챕터의 마지막 개념 블록을 형성할 것이다.

1.4.1. 존재론적 근본 규칙으로서의 차이

들뢰즈는 차이를 일차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긍정적인 존재론적 규칙으로 설정하여, 동일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도전한다. 들뢰즈의 존재론에서 차이는 부정(negation)이나 이탈 혹은 변칙(deviation)이 아닌, 생성을 추진하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힘으로 제시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움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진정한 창조적인 존재론의 기초를 형성한다.

전통적인 철학에서 차이란 대체로 존재론의 차원에서 2차적인 지위로 강등되어, 단순히 두 사물 사이의 관계 또는 토대가 되는 동일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매개되고 평평해진 것으로, 결국엔 동일성에 종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러한 관점을 완전히 역전시키면서, ‘차이를 동일성에 환원시키는 재현적 형식들과 무관하게,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 간의 관계를 부정성에 기초해 확립시키려는 형식들과도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생각하고자 한다.⁵⁷ 그에게 차이는 적극적으로 사물과 현상들을 구별하는 주요한 긍정적 힘으로 기능한다. 이는 “결정(determination)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구별(unilateral distinction)의 형식을 취하는 상태”⁵⁸로, 그것을 구별하는 하늘 없이 하늘을 구별하는 한줄기 번개와 비슷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일종의 “괴물 같은” 차이로, 기존에 확립된 사유와 존재의 구조에 도전하는 힘이다.⁵⁹ 이렇게 차이를 주요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것은 재현에 대한 들뢰즈의 광범위한 비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전통적인 “유기적 재현”은 차이를 “동일성, 대립, 유사성, 그리고 닮음의 네 겹의 뿌리”에 종속시킴으로써 차이를 매개한다.⁶⁰ 이 과정은 차이를 순응시키고 길들여서, 어떤 순수한 상태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 들뢰즈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헤겔에 이르기까지의 철학자들이 “차이의 개념”을 단순한 “개념적 차이”와 잘못 뒤섞어 씌으로써, 재현에 선행하고 재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의 단독적인 이데아를 개발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⁶¹ 그리하여 들뢰즈의 철학은 “이미지 없는 사유”, 즉 실재를 구성하는 순수한 낱것의 매개되지 않은 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재현적 틀을 거치지 않는 사유의 방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긍정은, 실재의 단독적이고 일관된 토대로, 앞서 확립된 존재의 일의성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존재가 일의적이라는 의미는, “존재는 그것이 말해지는 모든

⁵⁷ Deleuze, G. (1994). *Difference and Repetition* (P. Patton, Trans.). Continuum, p. xix.

⁵⁸ Ibid., p. 28.

⁵⁹ Ibid., p. 29.

⁶⁰ Ibid., p. 29.

⁶¹ Ibid., p. 27.

것에 대해 단일하고 동일한 의미로 말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말해지는 것은 모두 다르다: 그것은 차이에 대해 말해진다”는 것을 말한다.⁶² 즉 이것은 동질성의 일의성이 아니라 차이의 일의성이다. 모든 현상은 동일한 존재론적 평면 위에 존재하지만, 각각은 그 고유하고 본질적인 차이를 통해 이 단독적인 존재를 표현한다. 이는 내재성의 평면이 차이의 무한한 다중성(*mutiplicities*)⁶³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모든 차이들은 동등하게 실재적이고 모두 동등하게 존재를 표현하며, 그 어느 것도 더 우월하거나 부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틀에서 보면, 부정(*negation*)은 주요한 힘이 아니라, 긍정(*affirmation*)의 “그림자” 또는 “부수적 현상(*epiphenomenon*)”일 뿐이다.⁶⁴ 실로,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는 긍정 자체 혹은 긍정의 대상이다. 본질적으로 긍정은 차이이다.”⁶⁵ 따라서 차이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결핍이나 부재가 아니다.

근본적인 존재론적 규칙으로서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들뢰즈의 생명주의의 원동력으로 차이를 확립시키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단순한 재발(*recurrence*)이 아니라 영원 회귀의 형식으로 심오한 존재론적 창조성의 메커니즘이 되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그것이 끊임없는 새로움의 생산을 보증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1.4.2. 근본적 차이 및 긍정으로서의 영원 회귀

"The eternal return is not the return of the Same, but the repetition of the Different. It does not select the identical, but the singular. It does not presuppose the One, but the Multiple. It is the thought of the future, the thought which selects and which saves."
– Henry Somers-Hall, "Deleuze, Freud and the Three Syntheses," *Deleuze Studies*.

앞에서 우리는 차이가 주요하고 긍정적인 존재론적 원리임을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얼핏 보기에 이 끊임없는 새로움이라는 개념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 즉 영원 회귀에 대해 알아보자. 주지하다시피, 영원 회귀는 니체 사상의 중요한 축으로서 들뢰즈는 그것을 재해석하여, 영원한 회귀를 동일한 사건의 단순한 재발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와 긍정성의 원리로 변형시킨다. 이러한 재개념화는 들뢰즈의 존재론적 창조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것으로, 새로움의 지속적인 생산과 잠재태의 끊임없는 현실화 과정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⁶² Ibid., p. 36.

⁶³ 다중성은 "실재를 (전통적인 방식에서와는 다르게) 하나나 다수로 환원될 수 없는, 내부적 관계와 변형에 의해 정의되는 복잡하고 전체화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묘사한다." Radek Przedpełski & S. E. Wilmer (eds.), (2020). *Deleuze, Guattari and the Art of Multiplicity*. Edinburgh University Press. p. 1. 참조.

⁶⁴ Ibid., p. 55.

⁶⁵ Ibid., p. 52

니체의 영원한 회귀라는 개념은 종종, 순환적인 반복, 즉 모든 현상이 정확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끝없는 순환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러한 해석을 거부하면서, 영원 회귀는 동일한 것의 재발이 아니라 차이의 회귀임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영원 회귀는 동일한 것의 회귀를 의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이전의 동일성들이 폐지되고 해체된 세계(권력의지의 세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회귀는 존재이지만, 오직 생성으로서의 존재이다. 영원한 회귀는 '동일한 것'을 다시 가져오지 않지만, 회귀는 생성이라는 오직 하나의 동일성을 구성한다.”⁶⁶ 즉 이 말은, 오직 진정으로 새로운 것만이, 즉 계속 변화하고 분화되는 것만이 회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 원리에 의하면, 고정된 통일성이나 동일성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배척되고 회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⁶⁷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는 또한 어떻게 그러한 선택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영원 회귀는 존재론적 창조성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데, 이때 그것은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 변혁적인 것만을 승인하고, 동시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반응적인 것, 정체된 것, 혹은 반복적인 것은 제거하는, 일종의 엄격한 테스트로 작용한다. 콘스탄틴 V. 바운다스는 들뢰즈의 “전통의 반복/재활용과 차이를 만드는 반복” 사이의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⁶⁸ 영원한 회귀는 이데아에 내재된 “강도있는 반복”으로, 그 원리 안에서 모든 것은 분열을 겪으면서 그 본질이 변형된다. 즉 그것은 “예외, 위반, 차이”의 원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⁶⁹ 이 과정은 “반응적 힘들”을 파괴하거나 혹은 스스로 자기파괴함으로써 “능동적-되기”를 선택하고, 그럼으로써 부정의 긍정과 “긍정의 힘”을 구현하게 된다.⁷⁰

이러한 선택적 특성은 새로움의 끊임없는 생산과 잠재태의 지속적인 현실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영원 회귀는 정체나 고정된 동일성으로의 회귀에 저항하며 우주가 새로운 형식들의 생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근거를 허물기”(ungrounding), 즉 파생된 형태보다 원본을, 그리고 시뮬라크르보다 정적인 실체를 우선시하는 모든 토대를 해체하는 “보편적 근거 허물기”의 과정으로 작용한다.⁷¹ 이는 니체의 “전-인격적 단독성”(pre-personal singularities)⁷² 개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차이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을 구현하며, 어떤 단독적인 차이의 사건도 다른 차이의 유일한 근거나 원인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영원 회귀는 자신의 심오한 진리 안에서, 조건들과 동인들을 거부하고 “생산물의 자율성”을 확립하면서, “오로지

⁶⁶ Deleuze, G. (1994). *Difference and Repetition* (P. Patton, Trans.). Continuum, p. 41.

⁶⁷ <https://iep.utm.edu/gilles-deleuze/>, Section 4.c “Repetition and Time” provides further context on Deleuze’s anti-Platonism and his reinterpretation of the eternal return.

⁶⁸ Boundas, C. V. (1993). Editor’s Introduction. In *The Deleuze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p.7

⁶⁹ Ibid., p. 8.

⁷⁰ Boundas, C. V. (1993). Eternal Recurrence. In *The Deleuze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p. 93

⁷¹ Deleuze, G. (1994). *Difference and Repetition*, p. 67.

⁷² Parr, A. (Ed.). (2010). *The Deleuze Dictionary Revised Edi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p. 85.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둔다.⁷³ 이렇게 영원회귀를 통해 걸러진 이러한 차이에 대한 끊임없는 긍정은 들뢰즈의 존재론적 창조성의 핵심을 이루며, 실재가 끊임없는 생성과 끊임없는 새로움의 생산 상태에 머물도록 보장한다.

이번 섹션에서는 들뢰즈의 틀 내에서 생성적 힘으로 작용하는 반복에 대해 살펴보았다. 반복을 새로움을 생산하는 힘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제 우리는 사건들(events)의 논리에 대한 탐구로 넘어 가볼 것인데, 들뢰즈의 사건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차이와 반복의 이러한 원리들이, 내재성의 평면에 간간히 끼어들면서 창조적 흐름을 현실화하는, 이른바 단독적인 발생들(singular occurrences) 속에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4.3. 사건의 논리: 단독성과 내재적 생산

차이의 영원한 회귀를 보장하는 생성적 힘으로서 들뢰즈의 이른바 차등적 반복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제 이러한 차이와 반복의 원리가 어떻게, 내재성의 평면을 가로지르면서 일종의 일시적 단절로 솟아오르는 단독적인 사건에 작용하는지에 대해 물을 것이다. 이 물음은 생성의 창조적 흐름의 현실화 과정의 후반부에 대한 것이며, 본 연구 제1장의 마지막 물음을 구성한다.

들뢰즈에게 사건이란 단순히 시간적인 발생들이 아니라, 강도와 변형의 단독적 지점들로 간주되며, 그것이 발생하는 신체나 상황과는 별개로 이해되어야 하는 비물질적 실체들이다. 즉 사건은 강렬한 차등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단독적인 발생이다.⁷⁴ 그것은 비물질적인 발생으로, 신체에 환원될 수 없는 채로 신체를 가로지르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한 생성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전투는 하나의 사건을 구성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참여한 군인들의 신체나 사용된 무기와는 별개의 것으로 남는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질병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신체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사건은 단지 발생하는 것(what occurs; an accident)이 아니라, 그 발생하는 것 안에서 생산되는 것, 즉 표현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어떤 순수한 '표현된 것'이다.”⁷⁵ 사건은 외부적이고 초월적인 힘들, 혹은 이상적인 청사진에 의해 강요된 발생이 아니라, 물질적인 과정과 실천들 안에서 솟아오르듯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재적 생산을 정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재란 차이적 힘의 지속적인 역동성을 통해 그 내부에서부터 생성되는 어떤 것이다.

⁷³ Deleuze, G. (1994). *Difference and Repetition*, p. 90.

⁷⁴ Freek de Haan, “Counter-actualizing Gentrification: A study of problems and practices of displacement in Arnhem, Vienna and Istanbul,” Radboud Universiteit Nijmegen, 2022, Section 1.4.3, p. 33.

⁷⁵ Deleuze, G. (1990). *The Logic of Sense* (M. Lester, Trans.). Columbia University Press, p. 150.

사건은 잠재태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한다. “실재하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 잠재태는 순수한 차이와 잠재력의 저장소이다. 하나의 사건은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그 사건이 발생한 조건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창조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⁷⁶ 이는 현실화(actualization)를,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청사진을 의미하는, 어떤 가능태의 단순한 실현과는 구별한다. 현실화된 사건은 새로운 창조, 즉 차이의 창조적 힘이 드러나는 일종의 파열 혹은 솟아오름이다. 들뢰즈는 “사건이란 무조건적인 것,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 즉 회귀하는 순수 차이”라고 말한다.⁷⁷ 각각의 사건은 유일무이하고 반복될 수 없는 발생들이지만, 그것은 차이의 영원한 회귀를 구현하여 영속적으로 새로움을 확보한다. 이는, 영원 회귀에서 회귀하는 것이 고정된 동일성이 아니라 사건의 단독성, 즉 사건을 구성하는 순수 차이임을 의미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사건은 생성의 지속적인 흐름이 보다 명료하게 표현된 어떤 것이다. 그것은 이 흐름이 강도들과 정동들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융합하는 지점들, 그 순간들로서 작용한다. 사건은 “그것이 산출하는 모든 해석 대상들에 내재하는 단독적인 경향성들과 역량들의 추상적인 역동성”을 표현한다.⁷⁸

이러한 강도있는 차이들과 실천들은 인간 역사를 훨씬 뛰어 넘는 계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계보가 자본주의 이전, 심지어는 인간 이전의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결국 실재에 대한 어떤 포스트휴먼적 관점을 구현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건은 “탈영토화의 최첨단”⁷⁹으로 기능하면서, 기존에 확립된 계층화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탈주선’(lines of flight)들을 열어젖힌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내재성의 평면 위에 지속적으로 새로움이 생성되는 데 기여한다. 즉 사건은 실재가 분화되고 변형되는 지점을 굽이굽이 표시하면서 생성을 구현한다. 들뢰즈의 창조적 종합의 정점인 이러한 사건의 심오한 논리는, 끊임없는 창조성에 의해 관장되는 우주관, 즉 들뢰즈의 그 독특한 형이상학적 틀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이면서도 다른 개념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2장: 비유기적 생명의 최소 작동 단위로서의 아상블라주: 기계적 존재론을 향하여

“Everywhere it is machines – real machines, not figurative ones: machines producing machines, the effect of which is to connect to another machine. A product connected to a product, an output connected to an input.”
– G. Deleuze.

⁷⁶ Freek de Haan, Ibid., p. 12.

⁷⁷ Deleuze, G. (1994). *Difference and Repetition* (P. Patton, Trans.). Continuum, p. 90.

⁷⁸ Freek de Haan, Ibid., p. 33.

⁷⁹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B. Massumi,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9.

제1장에서는 들뢰즈의 생명론적 존재론에 대한 나름의 체계적인 아웃라인을 제시했다.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즉 존재의 일의성, 내재성의 평면, 잠재태와 현실태의 역학, 그리고 차등적 반복. 이제 본 연구는 그러한 추상적인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들이 실제 작동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그것은, 전통적인 실체 개념이나 고정된 동일성의 개념으로 퇴행하지 않고 그러한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어떻게 실재 내에서 구체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관련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비유기적 생명”의 기본 단위로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그것을 통해 생명의 힘들이 스스로를 융합하고 표현하는 역동적인 구성의 과정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번 장에서는 들뢰즈에 의해 재구성된 욕망 개념을 시작으로, 그의 기계적 존재론에서 아상블라주의 역할을 탐구한다. 여기에서 욕망은, 전통적인 심리학적 설정을 넘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비인격적인 힘으로 나타나는데, 욕망에 대한 이러한 재구성은 비유기적 생명의 역동적인 구성체인 아상블라주의 형성과 그 작동을 기술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이론적 절차이다. 본 장의 논의는 주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공동 저작인 《앙티 오이디푸스》와 《천개의 고원》을 중심으로 개진될 것이다.⁸⁰

2.1. 욕망의 기계적 본질

2.1.1. 결핍이 아닌 생산적 힘으로서의 욕망

“Desire does not lack anything; it does not lack its object. It is, rather, the subject that is missing in desire, or the lack that is missing in the subject.”

“Desire is a generative principle that assures continuous connections and transversal tie-ins.”

– G. Deleuze.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적 존재론에서 욕망은 기존의 관습적인 이해, 즉 결여 혹은 부재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재정의된다. 프로이트와 라캉의 전통적인 정신분석적학적 틀에서 종종 욕망은 결여된 무언가에 대한 갈망으로, 즉 충족을 추구하는 영속적인 불완전성으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이해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욕망은 더이상 결핍이 아닌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힘으로 기능하며, 그것은 어떤 공허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산 과정들, 즉 힘들과 관계들의 연결과 그 종합의 끊임없는 흐름을 구성하는 것에 관여한다. 그리고 Ian Buchanan에 따르면, “들뢰즈와 가타리의 아상블라주 개념은 이러한 욕망 개념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인데,⁸¹ 이는

⁸⁰Deleuze, G., & Guattari, F. (1983).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R. Hurley, M. Seem, & H.R. Lane,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B. Massumi,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⁸¹ Buchanan, I. (2021). *Assemblage Theory and Method*. Bloomsbury Academic, p. 55.

들뢰즈와 가타리 자신들이 강조하듯이, "욕망이 생산한다면, 그 산물은 실재적이고, 욕망이 생산적이라면, 그것은 오직 실재 세계에서만 생산적일 수 있으며 실재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²

한편, 욕망은 기본적으로 "욕망-기계"로서 작동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욕망의 비인격적이고 객관적인 힘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⁸³ 욕망의 이러한 힘은 상징적 재현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결합을 통해 직접적으로 실재를 생산해내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욕망-생산"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며, 존재의 본질을 구성하는 이른바 "현실적 요인(actual factor)"으로 이해될 수 있다.⁸⁴ 욕망의 이러한 기계적 양태는 아상블라주 안에서 자율적으로 기능하면서, 구체적인 배열들을 통해 조직화되고 표현된다. Ian Buchanan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아상블라주는 그 기계적 양태에 있어서의 욕망이며, 더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욕망이 파악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⁸⁵ 이렇듯, 들뢰즈에게 있어서 욕망은 개인에게 국한된 주관적 심리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서로 다른 요소들을 연결하여 역동적인 구성체들을 형성하는 편재적이고 전-개인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욕망에 대한 이러한 재정의는 어찌보면, 들뢰즈의 생명주의적 존재론과 그의 내재성의 평면 개념에 너무나 잘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욕망은 생성을 추진하며 내재성의 평면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에너지이다. 제1장에서 탐구했듯이, 내재성의 평면은 힘들과 관계들의 역동적이고 연속적인 장이자, 잠재성들로 가득 찬 "혼돈의 한 단면(section of chaos)"이다. 욕망-생산은 바로 이 평면 위에서 전개되면서, 끊임없이 연결하고 종합하며, 실재의 차이적 흐름으로부터 새로움을 생성해낸다. 여기에서 욕망은 단순히 인간적인 속성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원리로서, 즉 잠재적인 것을 현실화하고 평면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어떤 근본적인 힘으로서 기능한다. "욕망은 기계적인 것이지 오이디푸스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들뢰즈와 가타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욕망이 재현적 제약들이나 기존의 인간적 이해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이다.⁸⁶ 즉 욕망의 생산물들은 허상 혹은 환상이 아니라 실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며, 그로 인해 그것은 세계의 실체를 형성하는 일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섹션에서는 들뢰즈에게 있어 욕망이 전통적인 결핍의 개념으로부터 존재의 보다 더 근본적인 생산력으로 재정립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욕망에 대한 이러한 재개념화는 모든 아상블라주들의 형성 배후에서 그 동기를 부여하는 원리로서의 욕망이 수행하는 능동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⁸² Deleuze, G., & Guattari, F. (1983).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p. 26.

⁸³ 이것은 일종의 기능적 개념으로서, 들뢰즈 존재론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철학적 표현이다.

⁸⁴ *Ibid.*, p. 129.

⁸⁵ Buchanan, I. (2021). *Assemblage Theory and Method*. Bloomsbury Academic, p. 63.

⁸⁶ Deleuze, G., & Guattari, F. (1983).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p. 63.

2.2. 아상블라주 이론과 영토 역학

“Assemblages are already different from strata. They are produced in the strata, but operate in zones where milieus become decoded.”

– G. Deleuze.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적 존재론에서 아상블라주들은, 이른바 기계적 욕망이 실제에서 드러나는 작동 단위들이자, 이질적 요소들의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구성체들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아상블라주들은 정적인 구조들 혹은 전통적인 유기체 개념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이번 섹션에서는, 아상블라주들의 다차원적인 작동들의 여러 면모들, 특히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의 지속적인 운동들을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아상블라주는 이러한 역동적 과정들을 통해 조직화되고 변형되면서, 생명력들이 현실화되고 '비유기적 생명'이 표현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2.2.1. 힘들의 역동적인 구성체로서의 아상블라주와 그 작동 원리

“A deterritorialization is always accompanied by a reterritorialization, even if the latter is only relative, always provisional, and always open to a new deterritorialization”

– G. Deleuze.

우선 아상블라주는 단순히 서로 상이한 부분들의 집합체 혹은 결합물이 아니다. 아상블라주들은 들뢰즈의 기계적 욕망 개념이 현현하는 작동 단위들로서, 이러한 역동적 구성체들은 생명 에너지를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들로 기능하면서, 그의 철학적 틀 안에서 개체화(individuation)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들은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체도, 정적인 구조물도, 혹은 관습적인 유기체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표현적인 것, 유형적인 것과 비유형적인 것, 그 모든 측면을 포괄하면서, 일시적이고 생산적인 구성체들(configurations)을 형성하기 위해 수렴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이질적인 연쇄를 나타낸다.⁸⁷ 아상블라주들은 기존에 이미 확립되어 있다가나 혹은 외부로부터 강제된 구성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실재의 요소들을 영속적으로 연결하고, 분리하고, 재구성하는 욕망의 내재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구체적 상황 혹은 복합적인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끊임없는 영토화 및 탈영토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의 양식들을 생산하는, 이른바 "비유기적 생명의 작동 단위"로서 기능한다.⁸⁸ 이러한 아상블라주는

⁸⁷ Buchanan, I. (2021). *Assemblage Theory and Method*. Bloomsbury Academic. Introduction section.

⁸⁸ Parr, A. (Ed.). (2010). *The Deleuze Dictionary Revised Edi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p. 18.

내재성의 평면 위에서 생명력이 발현되고 새로운 실재들이 생성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이러한 아상블라주는 두 개의 상호 연결된 축을 따라 작동하는데, 각 축은 이 아상블라주의 동적인 특성에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평축은 구성/조성(**composition**)의 축이고, 수직축은 변형의 축(**transformation**)이다.

수평축은 "신체의 기계적 아상블라주"와 "발화(**enunciation**)의 집단적 아상블라주"로 구성된다.⁸⁹ 신체의 기계적 아상블라주는 물질적 구성 요소들, 예를 들어 하나의 풍경의 물리적 요소들, 하나의 유기체 내의 생물학적 기관들, 또는 하나의 시스템의 기술적 구성 요소들과 그것들의 기능적 상호 연결들에 관련된다. 반대로, 발화의 집단적 아상블라주는 기호들, 담론들, 기호 체계들, 그리고 아상블라주를 분절시키는 비물질적 변형들 등 표현적 구성 요소들을 포괄한다.⁹⁰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구별된 채로 유지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전제로 하며, 아상블라주의 고유한 기능과 표현성을 규정하는, 이른바 "이중적 표현/분절(**double articulation**)"을 형성한다. 이러한 이중 분절은 역동적 상호작용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의 아상블라주, 그 다중성은 필연적으로 기호학적 흐름, 물질적 흐름, 사회적 흐름에 동시에 작용한다."⁹¹ 이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효과들을 생성하는 아상블라주들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본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상블라주의 수직축은 영토화(**territorialization**) 및 탈영토화(**detrterritorialization**), 그리고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의 역동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영토화란 모든 흐름들을 안정화하고, 조직화하며, 부호화함으로써 일시적 정합성 또는 이른바 "영토들"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는 경계를 확정하는 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경계들을 그어내고, 패턴들을 확립하며, 임시적 일관성을 형성하는 역동적 과정이다. 그것은 내재성의 평면의 한 분절을 관리 가능하고 "살 수 있는 질서(**livable order**)"로 가져오려는 노력이자, 가공되지 않은 무형의 혼돈에 대한 방어이다.⁹² 이 과정은 요소들의 선별, 그리고 특정한 질서의 부과 과정을 포함하며, 그리하여 그것들을 안정적 구조들로 전환시킨다. 탈영토화란 이렇게 확립된 경계를 해체하고, 흐름을 디코딩하며, 새로운 연결들과 가능성들에게로 아상블라주를 열어젖히면서 실질적으로 이른바 창조적인 "탈주선(**line of flight**)"으로 기능하는 상반된 운동, 일종의 대항 운동으로서 작동한다.⁹³ 그것은 창조적 "탈주선"이자, 아상블라주를 현재 상태를 넘어서도록 추진하는 탈출과 변형의 운동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듯이, "분절의 선들, 층위화, 지층들과 영토들이 있지만, 또한 탈층위화,

⁸⁹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B. Massumi,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88.

⁹⁰ Ibid. p. 88.

⁹¹ Ibid., p. 22.

⁹² Buchanan, I. (2021). *Assemblage Theory and Method*. Bloomsbury Academic, p. 106.

⁹³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p. 9.

탈영토화, 그리고 탈주의 선들, 운동이 있다."⁹⁴ 이 운동은 단순히 파괴적이진 않으며, 새로움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심오한 차원에서의 생성적 과정이다. 그것은 확립된 형태들을 "흔들어 풀어놓는" 과정으로서, "비기표적 입자(assignifying particles)들이나 순수한 강도들이 통과하거나 순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탈영토화는 한 영토로부터 다른 영토로의 이동을 포함하는 상대적인 과정일 수도 있고, 일관성의 평면(plane of consistency)으로의 급진적 개방, 즉 무형태(the unformed)를 향한 운동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⁹⁵ 재영토화는 이러한 탈영토화 이후에 새롭게 수정된 영토를 재구성하는 그 후속 과정과 관련된 운동이다. 그것은 원래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으며, 새롭고 일시적인 또다른 일관성을 확립한다. 이 재영토화를 통해 전체 과정—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이, 단순한 파괴의 운동이거나 이전 상태로의 되돌림이 아닌,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연속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안정화와 불안정화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은 새로움을 생성하고, 이로 인해 아상블라주는 고정된 동일성이 아닌 역동적인 흐름의 과정으로서의 개체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러한 힘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이 아상블라주들의 "비유기적 생명"을 조각하고 재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하듯이, "이러한 생성들 각각은 한 항의 탈영토화와 다른 항의 재영토화를 가져오며, 두 생성은 서로 연결되어 탈영토화를 더욱 멀리 밀어붙이는 강도들의 순환 속에서 어떤 릴레이들을 형성한다."⁹⁶ 이러한 끊임없는 운동은 실재를 영속적 운동 상태에 있는 것으로, 즉 고착화에 저항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생성하는 유동적인 자기조직화의 과정으로 드러낸다.

2.2.2. 아상블라주 형성의 동력으로서의 욕망

"Assemblages are fundamentally assemblages of desire... desire is always assembled."

— G. Deleuze.

단순한 부재 혹은 결핍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생산적 힘으로 재구성된 욕망은, 실재를 구성하는 끊임없는 유동성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현현하고 조직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을 아상블라주들의 형성과 그 지속적인 변형의 배후에 있는 역동적인 추진력으로 상정한다. 그렇다면, 기계적 힘으로서 욕망은 이러한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형성물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욕망은 직접적이고 매개되지 않은 연결들을 통해 작동하면서, 들뢰즈와 가타리가 "욕망-생산"이라고 부르는 것에 참여한다. 이 개념이 함의하는 바는 욕망이 주체가 대상을

⁹⁴ Ibid., p. 3.

⁹⁵ Ibid., p. 4-5.

⁹⁶ Ibid., p. 10.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생성하기 위해 흐름들과 강도들(intensities)이 합쳐지는 비주체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욕망은 그 모든 생산에서 "현실적 요인", 즉 현실화의 요소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이 생산적 힘은 아상블라주들이 수평적 축과 수직적 축, 양 축을 가로지르며 형성되도록 작동한다: 첫번째로, 구성(composition)의 수평축에서, 욕망은 "신체들의 기계적 아상블라주"—즉 물질적 구성요소들과 그것들의 기능적 연결들—를 "발화의 집합적 아상블라주"—즉 기호들과 담론들과 같은 표현적 구성 요소들—와 연결시킨다.⁹⁷ 이 축은 서로 다른 요소들의 복잡한 결합들을 포함하며, 일시적이고 생산적인 전체를 형성하는데, 욕망은 이러한 재료들을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아상블라주 안에서 그것들에게 특정한 속성들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⁹⁸ 다음으로 변형의 수직축에서 욕망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속적인 과정들을 추진하는데, 영토화에서 욕망은 흐름들의 안정화와 조직화를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와 동시에, 탈영토화 즉, 기존에 확립된 경계들의 분해 혹은 해체를 촉진함으로써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아상블라주를 새로운 연결들과 가능성들로 열어놓는다.

이렇듯, 욕망에 대한 이러한 기계적 재개념화를 통해 실재는 욕망-생산의 자기조직화의 연속체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아상블라주들은 외부적 활성화를 기다리는 정적인 실체들이라기보다, 욕망의 내재적 활동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인 변화의 유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욕망이 아상블라주 내의 단순한 구성요소가 아니라, 그것의 조직화 원리로서, 그것의 역동적 전개로서, 그리고 지속적 변형을 위한 그것의 역량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떤 의미에서, 아상블라주의 물질적 구성요소들은 엄연히 현존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모든 흐름을 생동시키는 이러한 욕망과 비교해서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⁹⁹ 즉 그것들은 단지 욕망의 특정한 배열들을 현실화하는 부수적 요소들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들뢰즈 철학에서 욕망의 기계적 측면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 기계들의 어떤 속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아상블라주 안에서 욕망이 지니는 이러한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기능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내재성의 평면 위에서 생명력들이 현현하고 새로운 실재들이 생성되는 구체적 메커니즘들이 구성될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 모든, 선들(lines)과 측정 가능한 속도들은 아상블라주를 구성한다"고 말한다.¹⁰⁰ 이는 아상블라주가 생성 과정에 필수적 요소로서 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면서, 비유기적 생명의 살아있는 표현으로서 기능함을 시사한다. 욕망의 기계적 본질과 아상블라주의 영토적 역학들(territorial dynamics)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들뢰즈 철학에서 또다른 급진적 개념인 '기관 없는 몸' (기관없는 몸, Body without Organs, BwO)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다음 절에서 다룰 이 개념은 들뢰즈가, 총위화를 해체하고

⁹⁷ Ibid., p. 88

⁹⁸ Buchanan, I. (2021). *Assemblage Theory and Method*. p. 57.

⁹⁹ Ibid., p. 121.

¹⁰⁰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p.4.

내재성의 평면의 강도적이고 비유기적 생명의 힘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고안해낸 일종의 윤리적 개념 장치이다.

2.3. 실험적 실천으로서의 기관 없는 몸(BwO)

“How do you make yourself a Body without Organs? You strip the organism, you dismantle it, you open it onto a plane of consistency. You must dismantle the organism, not destroy it. You must organize it, not disorganize it. You must open it up, not close it off. You must make it flow, not stagnate it.”
– G. Deleuze.

기관 없는 몸, 이 수수께끼 같은 개념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론적 존재론 내에서 하나의 급진적인 실험적 실천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번 절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신중하게 고의적으로 의도된 탈층화(**destratification**)와 강도적 생성/되기(**intensive becoming**)을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작동하며, 내재성의 평면이 지닌 순수하고 비유기적인 생명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즉 기존에 확립된 경직된 조직체들을 해체하는데 있어 이 기관 없는 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유기체를 비롯하여 더 광범위한 생성 과정들과 그것이 맺는 그 복잡한 관계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2.3.1. 탈층화로서의 BwO와 강도적 생성

“A BwO is made in such a way that it can be occupied, populated only by intensities. Only intensities pass and circulate.”
– G. Deleuze.

기관 없는 몸(BwO)은 들뢰즈 철학에서 그것의 물리적 외연과는 전혀 다른 "탈층화"를 위한 추상적, 개념적 도구로서 기능한다. 즉 그것은 엄격한 조직화와 계층들을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계층화들은 생물학적 유기체들, 사회적 코드들, 언어적 구조들, 그리고 고정된 주체성들 전부에 포함되는 과정들이다. 그렇기에 기관없는 몸이 주창할 이러한 탈층화의 과정은 들뢰즈의 생명주의적 철학을 규정하는 강도적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관 없는 몸은 하나의 "매끄러운 공간(**smooth space**)"으로서, 순수한 강도들이 고정된 기능들이나 동일성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순환하는 내재적 장이다.¹⁰¹ 이것은 "이미지 없는 신체"이며, 어떤 형식화도 조직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관성의 평면(**plane of**

¹⁰¹ Ibid., p. 484.

consistency)"으로서, 여기에서 욕망은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작동하게 된다.¹⁰² 이러한 매끄러운 공간은 고정된 점들과 선들에 의해 조직되고 계층화되어 규정되는 "줄무늬 흠이 패인 공간(striated space)"과 대조를 이룬다. 기관 없는 몸은 그 강도적 흐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유기체를 해체하며, 기관들을 그 할당된 기능들로부터 해방시켜 새롭고 예기치 못한 연결들을 가능하게 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유기체를 해체하여, 비기표적 입자들 또는 순수한 강도들이 통과하거나 순환하도록 하며, 주체들에게 오직 강도의 흔적으로서 그 이름 이상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속성을 부여한다."¹⁰³ 이러한 과정은 생명의 에너지를 해방시켜 그것이 기존 형식들에 의한 포획이나 코드화 없이 내재성의 평면을 가로지르며 횡단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탈층화는 "강도적 생성" 과정의 중심에 위치한다. 경직된 조직화들을 해체함으로써, 기관 없는 몸은 모든 조직화된 존재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비유기적 생명"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변혁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여기에서 비유기적 생명은 무생물적 물질에 대한 은유가 아니라,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이고 비인격적이며 강도적인 생명력으로서, 유기체적 형식들에 앞서고 그것들을 넘어서서 작동하는 것이다.¹⁰⁴ 그리고 기관 없는 몸은 이러한 "기관들 없는 강력한 생명,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 살아있는 신체"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실험적 실천이다.¹⁰⁵ 그것은 이런 방식으로 "지각할 수 없게 되는(becoming-imperceptible)"의 과정을 개시하며, 여기에서 고정된 동일성들은 순수한 정동들과 강도들의 유동적 연속체 속으로 해체되고 용해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 경직된 분류들에 의해 이전에는 제약되었던 새로운 잠재성들이 현실화된다.

기관 없는 몸은 흐름들을 해방시키고 기존의 형식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현실화하는 실험적 실천으로서 기능한다. 그것은 아상블라주들이 지나치게 계층화되거나 경직되는 것에 대항하는 반작용의 힘으로 작용한다. "탈층화, 탈영토화, 그리고 탈주의 선들"을 촉진함으로써, 기관 없는 몸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구성들을 추구하며, 실재가 생성의 역동적 과정으로 남아있도록 한다.¹⁰⁶ 내재성의 평면이 지닌 순수하고 형식화되지 않은 생명력에 접근하는 이러한 기관 없는 몸의 급진적 변혁의 능력은 들뢰즈의 기계론적 존재론 내에서 그것이 결정적인 개념적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다.

2.3.2. 유기체와 유기적 조직화의 관계

"The Body without Organs is not a concept, nor is it a fantasy. It is a limit: the limit of the organism, the limit of its organization. It is the plane of consistency upon which all the assemblages of desire operate."

¹⁰² Parr, A (Ed.) (2010) *The Deleuze Dictionary Revised Edi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p. 37.

¹⁰³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p. 4.

¹⁰⁴ Lindner, E. (2024) *Inorganic Life: On Post-Vitalism*, Diaphanes. p. 33-34.

¹⁰⁵ Ibid., p. 33.

¹⁰⁶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p. 3.

– G. Deleuze.

이렇게 탈충화와 강도적 변형을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의 기관 없는 몸(BwO)은, 유기체를 비롯한 더 광범위한 조직화 과정들과 종종 복잡하고 역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기존의 형식들을 해체하는 기관 없는 몸이 어떻게 혼돈이나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과연 기관없는 몸은 그것이 파괴하는 구조들과 정확히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가? 미리 간략하게 말하자면, 기관 없는 몸은 유기체의 부정이 아니며, 또한 반-기관(anti-organ)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직화된 형식들에 의해 포획된 강도적 흐름들과 생명적 잠재성들을 해방시키는 가차 없는 힘, 어떤 역동적인 대항 전략으로서 기능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기관 없는 몸은 반-기관이라기보다는 "기관들의 반조직화"이다.¹⁰⁷ 이러한 구분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즉 기관 없는 몸은 신체나 그것의 기관들을 파괴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직된 조직화에 의해 부과된 고정된 기능들과 할당된 동일성으로부터 그것들을 해방시킨다. 보통 유기체 내의 기관들은 그 위치가 전형적으로 특정되고 또 각각 계층적인 역할들을 담당한다. 기관 없는 몸은 이러한 요소들의 고유한 내재된 능력들을 해방시키며, 그것들이 새롭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미리 결정된 역할들을 초월하는 새로운 아상블라주들을 형성하게 한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고 있듯이, "기관 없는 몸은 기관들 없는 신체가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기관들을 가진 신체이다."¹⁰⁸ 따라서 이를 통해 기관들은 그들의 유기체적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어떤 것과도 연결, 접속될 수 있는 순수한 강도들의 상태가 되어, 새로운 탈주선들을 촉진하고 다양한 생성들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관 없는 몸은 탈충화와 재계충화 사이의 지속적인 협상에도 참여한다. 그것은 정적인 무형의 상태가 아니라 경직된 사회적, 정치적, 생물학적 규범들, 코드들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역동적 과정이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새로운 형태의 삶과 표현을 열어젖히며, 가장 강력한 의미에서 "비유기적 생명"을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들뢰즈에게 있어 비유기적 생명이란 유기체적 형식들 이전과 그 너머에서 작용하는 편재적이고 비인격적인 생명력을 지칭한다. 기관 없는 몸은 이러한 비유기적 생명이 현실화되는 실험적 표면이며, 내재성의 평면이 지닌 창조적 잠재성들이 탐구되는 장소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기관 없는 몸은 개념이 아니라 실천이며, 실험이다"라고 단언한다.¹⁰⁹ 그것은 아상블라주들이 지나치게 계층화되고, 욕망과 생성의 흐름을 질식시키는 경직되고 위계적인 구조들로 굳어지는 경향에 맞서는 반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¹⁰⁷ Deleuze, G., & Guattari, F. (1983).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R. Hurley, M. Seem, & H. R. Lane,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327.

¹⁰⁸ Ibid., p. 329.

¹⁰⁹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p. 150.

기관 없는 몸과 기존의 조직화 형식들과의 이러한 역동적 상호작용은 들뢰즈의 기계론적 존재론에서 기관없는 몸이 수행하는 중요한 비판적 역할을 보다 분명히 드러낸다. 욕망, 아상블라주와 함께 기관 없는 몸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본 연구는 이 개념들이 일관된 이론적 장치로서 체계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한번더 살펴봄으로써 들뢰즈의 기계론적 존재론에 대한 보다 더 완성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2.4. 체계적 통합: 아상블라주, 욕망, 기관 없는 몸

“It is not a question of an imaginary production, but of a real production. Desire is a machine. The object of desire is not a thing, but a machine in.”

“Assemblages seem fundamentally to be assemblages not of power but of desire.”

“The BwO is the field of immanence of desire, the plane of consistency specific to desire”
– G. Deleuze.

이번 절은 아상블라주, 욕망, 그리고 기관 없는 몸(BwO)의 개념들을 통합한다. 욕망에 의해 생기를 부여받아 작동하고, 기관 없는 몸의 실험적 과정들에 종속되는 아상블라주들이 어떻게 생산과 생성의 연속적 과정으로서 실재에 대한 들뢰즈의 생명주의적 이해를 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 절은 이러한 삼원적 체계가 어떻게 집합적으로 실재를 역동적이고 자기조직적인 것으로 제시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위에서 전개한 설명들에 대한 일종의 요약이자 통합적인 시각으로 재구성된 아웃라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설명된 이른바 들뢰즈 존재론의 작동적 틀은, 제1장에서 소개된 생명주의적 존재론의 추상적, 형이상학적 원리들과 연결됨으로써, 그 원리들의 실제적 표현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2.4.1. 통합된 이론적 장치

아상블라주, 욕망, 그리고 기관 없는 몸(BwO)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론적 존재론 내에서 각자 독립적이고 고립된 개념들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통합된 이론적 장치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역동적 체계는 각각의 개념이 서로를 명확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면서 실재를 지속적 생산의 자기조직화 과정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얹혀서 일관성 있고 강력한 틀을 형성하게 되는지 알아보자.

결핍이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힘으로 이해되는 욕망은, 아상블라주들의 형성과 변형을 추동하는 활력적인 충동으로서 기능한다. 그것은 모든 생산에서 "현실적 요인"이며, 능동적으로 실재를 구축하는 힘들의 연결과 종합의 끊임없는

흐름이다.¹¹⁰ 아상블라주들은 이러한 욕망-생산이 구체적 현실화된 것을 나타낸다. 그것들은 욕망의 내재적인 잠재성에 조직적 구조를 제공하는 요소들—물질적이고 표현적인, 인간적이고 비인간적인—의 이질적 배열들이다. 아상블라주는 근본적으로 "기계적 양식의 욕망"이며, 욕망이 현현하고 생산되는 구성체이다.¹¹¹ 아상블라주의 물질적 구성요소들은 욕망의 특정한 배열을 현실화하는 부수적 요소들로서만 기능하며, 아상블라주 내에서의 욕망의 기계성이란 그것의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기능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¹¹² 기관 없는 몸(BwO)은 아상블라주들이 계층화되고 경직되는 본질적인 경향에 대해 전략적 대립에서 실험적 대항력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일관성의 매끄러운 평면이며, 고정된 기능들이나 동일성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순수한 강도들이 자유롭게 순환하는 탈층화된 영역이다.¹¹³ 기관 없는 몸은 아상블라주들 내의 고정된 배열들에 일관되게 저항하며, 생성의 역동적 흐름을 지속시키고 정적 형식들이 새로운 생산을 억압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것은 아상블라주들에 작용하는 외적 힘이 아니라, 모든 아상블라주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으로서 기존의 조직화를 지속적으로 교란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비기표적 입자들 또는 순수한 강도들"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여, 욕망의 생산적 역량이 방해받지 않고 새로운 연결들과 가능성들에 열려있도록 한다.¹¹⁴

이러한 세 개념들이 어떻게 집합적으로 역동적 과정으로서의 실재를 표현하는가? 욕망은 최초의, 그리고 끊임없는 생산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아상블라주들은 이러한 에너지를 위한 일시적이고 이질적인 조직화들을 제공하며, 개념적이지만 구체적인 실재의 단위들을 형성한다. 기관 없는 몸은 탈층화의 힘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조직화들이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보장하며, 그것들이 경직된 구조들로 석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실재는 영속적으로 변화하고, 영속적으로 생성되며, 그리고 영속적으로 새로움을 생성하는 상태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아상블라주의 개념은 그 기계적 양식에서 욕망의 구조와 작동을 명명하고 지도화한다"고 말한다.¹¹⁵ 이러한 세 개념들—욕망, 아상블라주, 그리고 기관 없는 몸—은 서로 깊이 상호 의존적이다. 각각은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외부적 설계나 초월적 원리들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로부터 실재를 생성하고 변형하는 일관되고 자기지속적인 체계를 형성한다.

이 절에서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론적 존재론의 내적 일관성을 확립하고자, 아상블라주, 욕망, 그리고 기관 없는 몸이 통합된 장치로서 기능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제 이러한 작동적 틀을 제1장에서 소개된 보다 광범위한 생명주의적 존재론의 원리들과 연결하여, 들뢰즈 사유의 연속성을 좀더 따라가 볼 것이다.

¹¹⁰ Deleuze, G., & Guattari, F. (1983).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p. 129.

¹¹¹ Buchanan, I. (2021). *Assemblage Theory and Method*. p. 63.

¹¹² Ibid., p. 121.

¹¹³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p. 484.

¹¹⁴ Ibid., p. 4.

¹¹⁵ Buchanan, I. (2021). *Assemblage Theory and Method*. p. 63.

2.4.2. 생명론적 존재론과의 연관성

들뢰즈 기계적 존재론의 세 요소, 아상블라주, 욕망, 그리고 기관없는 몸(BwO)의 작동 단위들은, 존재의 일의성, 내재성의 평면, 내재적 생성, 그리고 차이의 형이상학이라는 추상적인 원리들이 그 역동적이고 작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발현되는 과정으로서, 들뢰즈 형이상학의 일관된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존재의 단일하고 비초월적인 근거로 정의되는 내재성의 평면은 아상블라주들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장으로서 기능한다. 이 평면은 힘들과 관계들의 역동적이고 연속적인 장이며, 강도적 차이들로 들끓는 "혼돈의 한 단면"이다. 그리고 아상블라주들은 이 평면의 구체적 현실화들이다.¹¹⁶ 이질적 요소들의 연쇄로서, 아상블라주들은 이 평면에서 일시적인 일관성으로 등장하여, 평면의 무한한 다중성들을 식별 가능하고 유동적인 구성들로 분절, 표현함으로써 평면의 원초적 잠재성들에 형태와 일관성을 부여한다. 즉 내재성의 평면은 "비유기적 생명"의 무한한 저장소로서 기능하며, 아상블라주들은 이러한 생명이 자기조직화하고 표현하는 작동 단위들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존재의 일의성 개념이 기계론적 욕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일의성은 존재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단일하고 동일한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하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현상들이 동일한 존재론적 차원을 차지하는 차이의 일의성이다. 이러한 비계층적 원리는 기계론적 욕망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힘으로서의 욕망은 비인격적이고 객관적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존재론적 차별 없이 모든 지점을 다른 지점들과 연결하며, 모든 요소들이 연결과 생산에 대해 동일한 역량을 갖는 평평한 평면에서 기능한다. 만약 존재가 일의적이라면, 실재를 생산하는 근본적 추동력인 욕망 또한 일의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본질적인 작동에서도 질적 구별 없이 연결하고 종합해야 한다.

생성과 기관 없는 몸(BwO) 사이의 관련성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형과 분화의 끊임없는 과정인 생성은 들뢰즈의 생명주의에서 실재의 핵심을 구성하는데, 탈충화와 강도적 생성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기관 없는 몸은 이러한 변화가 끊임없이 전개되는 실험의 장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정된 형식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순수한 강도들이 자유롭게 순환하는 "일관성의 평면", "매끄러운 공간"이다. 기관 없는 몸은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경직된 조직화들을 지속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탈주선들을 열어젖힘으로써 생성을 현현한다고 했다. 그것은 주어진 어떤 아상블라주든 그 탈영토화된 한계로 밀어붙이는 힘으로서 작용하며, 새로움의 지속적 생산을 보장하고 정적 존재로 경화되는 것을 저항한다. 기관 없는 몸은 생성의 실천, 즉 생명에 내재된 역동성을 끊임없이 긍정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¹¹⁶ Parr, A. (Ed.). (2010). *The Deleuze Dictionary Revised Edition*. p. 129.

마지막으로, 제1장에서 근본적인 존재론적 규칙으로 확립된 차이의 원리는 아상블라주 형성에 있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아상블라주들은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질적 요소들 사이의 차이적 관계들을 통해 형성된다. 그것들의 역동성, 즉 끊임없는 영토화, 탈영토화, 그리고 재영토화는 차이들의 내적 놀이, 그 내부적 상호작용들로부터 비롯된다. 각각의 새로운 연결과 탈주선은 차이가 차이를 생산하는 것을 현현한다. 아상블라주 내에서 기계적 신체들과 집단적 발화들의 "이중 분절/표현"은 차이가 물질적 차원과 표현적 차원 모두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개념적 구성이다. 즉 아상블라주들은 차이의 일의성을 실행하는 작동적 형식들이며, 차이의 창조적 힘을 구현하는 "비유기적 생명"의 새로운 구성들을 영속적으로 생성한다.

2장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들뢰즈의 기계적 존재론과 그의 생명주의적 형이상학이 깊이 통합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포괄적인 틀은 추상적인 원리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보여줬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론의 주요 개념들이 어떻게 예술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3장: 생명력의 표현으로서의 예술

“Perhaps the highest object of art is to bring into play simultaneously
all these repetitions, with their differences in kind and rhythm, their
respective displacements and disguises, their divergences and decentrings...”
– G.Deleuze.

3.1. 감각의 복합체로서의 예술

“The work of art is a being of sensation and nothing else: it is a compound of percepts and affects. Percepts are no longer perceptions, they are independent of a perceiver; affects are no longer affections, they go beyond the strength of those who undergo them.”
– G.Deleuze.

들뢰즈의 생명주의적 존재론과 그러한 생명력들이 결합하는 기계적 작동들을 살펴본 이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추상적 원리들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영역인 예술로 그 주제를 옮겨보려고 한다. 제 3장에서는 제1장과 제2장에서 다룬 형이상학적이고 기계적인 개념들을 미학에 적용함으로써, 예술을 모방(mimesis)이 아닌 생명력의 직접적 표현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그러한 전환의 시작점으로서, 예술을 본질적으로 감각들, 특히 지각소(percept)¹¹⁷과 정동(affect)으로 구성된 것으로 재개념화한 들뢰즈의 관점을

¹¹⁷ 본 연구에서, percept는 perception(지각)과 구별하는 차원에서 지각소로 번역한다.

소개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인 재현 미학으로부터 벗어나, 예술을 미리 주어진 현실을 모방하거나 상징화하기보다는 강도들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자율적 영역으로 정립한다. 이를 통해 예술이 생명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현실화하는 역량으로서 이해되기 위한 틀이 마련된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주로 들뢰즈의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여 전개될 것이다.

3.1.1. 감각의 자율성

감각의 자율성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예술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예술적 창조와 수용이 이해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자율성은 어떻게 정의되며, 나아가 예술을 모방적 재현으로부터 해방시켜 감각의 자기충족적 실체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가?

들뢰즈는 감각들을 인간 관찰자에게 결속된 주관적 지각이나 일시적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그에게 감각들은 독립적 실체들로서,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가지며 그 어떤 생생한 경험을 넘어서는 존재들"이다.¹¹⁸ 예술에 의해 일단 표현된 감각은 그 자체로 본질적 타당성과 영원한 존재성을 가지며, 이는 마치 그것의 창조자나 지각자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념물과 같은 것이 된다. 또한 감각의 구성 요소인 지각소들도 "더 이상 지각이 아니며, 그것들을 경험하는 이들의 상태로부터 독립적"이다.¹¹⁹ 만약 어떤 예술적 지각이 어떤 유사성을 지닌다면, 그 유사성은 예술의 내적 과정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캔버스 위의 미소는 전적으로 색채, 선, 그림자, 빛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오직 그것의 물질적 구성만을 지시할 뿐 외부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미소를 참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인 정동들은 "더 이상 감정이나 애정이 아니며, 그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힘을 넘어서다." 즉 정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순수한 힘들인 "비인간적 생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¹²⁰

감각의 이러한 근본적 독립성은 예술이 "감각 블록들(blocs of sensation)"을 창조하고 보존하면서 작품 내에서 곧바로 드러난다. 이러한 블록들은 단순한 물리적 또는 유기적 제약을 넘어서는 내적 필연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 작품은 그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감각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존재이지 그 외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한다."¹²¹ 이러한 자기-참조적(self-referring) 특성은 예술을 모방적 재현이라는 관습적 역할로부터 해방시킨다. 예술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외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구축한다. 이는 실재가 지속적인 생성 혹은 '되기'의 과정이며 예술이 이러한 우주적 현실화에 직접 참여한다고 보는 들뢰즈의 역동적 생명주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우주적 현실화의 "스며드는

¹¹⁸ Deleuze, G., and Guattari, F. (1994). *What Is Philosophy?* (H. Tomlinson and G. Burchell, Trans.). Columbia University Press, p. 164.

¹¹⁹ Ibid. p. 164.

¹²⁰ Ibid. p. 164.

¹²¹ Ibid. p. 164.

가장자리/경계(seeping edge)"로서 기능하는 예술의 역량은 그것이 형성하는 이러한 감각들의 자율성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¹²² 이를 통해 예술은 재현적 틀에서 벗어나 잠재태의 미형성된 잠재력들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율성을 통해 예술은 들뢰즈의 생명주의적 존재론의 근본적 토대인 내재성의 평면의 강도적이고 전-개체적인 힘들에 직접 접근하고 이를 표현한다. 내재성의 평면은 모든 생성이 출현하는 근원으로서, 강도적 차이들로 가득한 단독적이고 연속적인 힘들과 관계들의 장이다. 예술은 자율적 감각들을 창조함으로써 이러한 전-인격적 영역에 침투하여, 우주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드러내 보인다. "예술은 철학만큼 사유하지만, 정동들과 지각소들을 통해 사유한다."¹²³ 이러한 직접적 참여는 예술을 감각의 자기충족적 존재이자 실재의 지속적 전개에 참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힘으로 정립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예술 내에서의 감각이란 자율적이고 독립적 존재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율성은 수동적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 성취로서, 생생한 경험의 혼돈적 흐름으로부터 순수한 감각들을 "빼앗는" 과정을 요구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예술의, 이른바 감각 탈취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1.2. 지각소와 정동의 탈취

"The percept is the landscape before man, the face before the portrait. It is the bloc of sensations, of pure beings of sensation: combinations of affects and perceptions that are detached from the subject and objects."

"Affects are precisely these nonhuman becomings of man, just as percepts are nonhuman landscapes."

"By means of the material, the aim of art is to wrest the percept from perceptions of objects and the states of a perceiving subject, to wrest the affect from affections as the transition from one state to another: to extract a bloc of sensations, a pure being of sensations."
– G.Deleuze.

¹²² 이 비유적 표현은 예술이 잠재태와 현실태 사이의 투과성 있는 경계에서 전개되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임을 잘 나타낸다. 여기에서 무한한 잠재성들은 감각과 생성의 새로운 형태들로 현실화되며, 그럼으로써 우주의 끊임없는 자기 창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예술은 현실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생산적 힘으로 확립될 수 있다.

¹²³ Zepke, S., O'Sullivan, S. (Eds.) (2010). *Deleuze and Contemporary Art*. Edinburgh University Press. p. 3.

앞에서 우리는, 예술을 인간의 지각과는 독립적으로 본질적 타당성을 지닌 "감각 블록들"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는 하나의 질문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그 감각들은 저절로 발생하는가, 아니면 적극적인 창조 과정을 수반하는가? 들뢰즈와 가타리는 예술적 창조가 정확히 바로 이러한 능동적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은 일상적 경험의 주관적이고 혼돈적인 흐름으로부터 지각소들과 정동들을 "탈취하는(wresting)"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이러한 변형의 과정은 평범한 것을 자율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며, 예술로 하여금 삶의 강도적 힘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새로운 감각들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한다.

지각소들과 정동들을 "탈취하는" 과정은 수동적 수용이나 단순한 모방과는 다르다. 예술가들은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순수한 감각들을 능동적으로 추출해낸다. 이는 대상들에 대한 경험적 지각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기존의 관습적이고 재현적인 기능들로부터 벗겨내는 것을 포함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술의 목적은, 물질적 수단을 통해, 대상에 대한 지각들과 지각하는 주체의 상태들로부터 지각소들을 탈취하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정동들로부터 정동을 탈취하는 것이다: 즉 감각의 블록, 감각의 순수한 존재를 추출하는 것이다."¹²⁴ 이러한 생성적 행위는, "감각의 존재(a being of sensation)"로서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실재를 창조한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스타일을 통해 이를 성취한다. 예를 들면, 작가의 문장구조, 음악가의 모드, 또는 화가의 선들과 색채들은 임의적인 미적 선택이 아니라 어떤 작동적 메커니즘들이다. 스타일은 경험된 지각들을 지각소들로, 경험된 감정들을 정동들로 변형시키는 것을 촉진한다. 이는 덧없는 주관적인 경험이 영속적이고 자율적인 감각으로 승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타일을 통해 예술가는 자신의 지각적이고 정서적 상태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술의 사유 능력이란 이러한 정동과 지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예술의 인지적 능력은 이성적 논증이나 추상적 개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수한 감각들을 구성하는 그 역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동적인 탈취 과정이 예술로 하여금 예술가나 관찰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내적 필연성과 지속성을 지닌 "감각 블록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블록들은 무작위적이지 않다.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재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것들을 세심하게 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재료는 표현력이 풍부해지며, 감각으로 완전히 변형된다. 이를 통해 예술은 전-개체적 힘들의 존재론적 현실화를 가능하게 하고, 미분화된 강도들과 정동들이 독특하고 역동적인 감각의 형태들로 융합되는 창조적 단독성으로 확립될 수 있다.¹²⁵ 이러한 틀에서 예술은 우주적 개체화를 위한 근본적 과정으로, 실재의 비가시적 측면들을 감각 가능하고 접촉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즉 이러한 "탈취" 과정은 삶의 강도적 힘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순수한 잠재성의 영역으로부터 감각의 새로운 형태들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¹²⁴ Deleuze, G., & Guattari, F. (1994). *What Is Philosophy?*, p. 166.

¹²⁵ Ibid., p. 166.

이번 섹션에서는 자율적 감각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예술적 창조의 능동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즉 탈취 과정을 통해 감각들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예술의 심오한 역량은, 예술이 어떻게 인간적 규모를 넘어서서 우주적 힘들을 포착하고 표현하는지, 그리하여 저 심오한 "우주적-생성"에 이르는지를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3.2. 우주적-되기로서의 예술

"Art does not reproduce chaos but confronts it, wrestles with it to create a world. The work of art is a fragment of chaos that has been framed, but it is also a window onto the chaos from which it comes."

"Art is not chaos but a composition of chaos that yields the vision or sensation, so that it constitutes, as Joyce says, a chaosmos, a composed chaos – neither foreseen nor preconceived. Art transforms chaotic variability into chaotic variety."
– G.Deleuze.

경험으로부터 지각소들과 정동들을 추출하여 자율적 감각들을 생성하는 예술의 역량을 살펴본 후, 이제 본 논의는 보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차원으로 그 범위를 넓혀 보려 한다. 이번 절에서는, 힘들을 포착함으로써 우주에 스며들어 있는 비가시적 에너지들을 드러내는 예술의 능력을 탐구한다. 이러한 과정은 들뢰즈가 예술의 "우주적-되기(becoming-cosmic)"라고 부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우주적 참여는 감각의 내적 구성을 초월하여, 예술이 우주의 비인간적이고 전-개체적인 힘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들뢰즈에 따르면, 예술은 "우주적 현실화의 스며드는 가장자리/경계(art as a seeping edge of cosmic actualization)"로 이해될 수 있다.¹²⁶ 예술이 인간적 규모를 초월하여 우주적 생성의 본질적 진리와 관계맺는 방식에 관한 분석은 주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이란 무엇인가?』와 『프랜시스 베이컨: 감각의 논리』를 참조한다.

3.2.1. 집에서 우주로

다소 비유적 표현인, "집에서 우주로"의 움직임은 예술로 하여금 우주적 힘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탈영토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집"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예술은 어떻게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초월하는 에너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여기서 "집"은 하나의 개념적 영토로서 기능한다: 즉 감각들이 최초로 구성되고 안정화되는 인간적 규모의 국소화된 공간이다. 이는 예술가가 처음으로 실제 경험으로부터 지각소들과 정동들을 추출하여 자율적인 "감각 블록들"을 창조하는 친숙한

¹²⁶ Deleuze, G., & Guattari, F. (1994). *What Is Philosophy?* (H. Tomlinson & G. Burchell, Trans.). Columbia University Press; Deleuze, G. (2003). *Francis Bacon: The Logic of Sensation* (D. W. Smith, Trans.). Continuum.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⁷ 이러한 초기 영토화는 예술적 창조를 위해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미적 힘의 전개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들뢰즈의 구상에서 좀더 심오한 예술은 이러한 국소화된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초월하는 힘들과 연결되어 "우주"를 향한 탈영토화의 운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주제의 확장이 아니라, 이른바 "우주적-생성"의 과정인 질적 도약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형의 과정에서, 예술은 "영토들을 우주 위에 열어놓고, 요소들을 혼합한다."¹²⁸ 그것은 주관적이고 인간중심적 해석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비인격적이고 전-개체적인 우주의 힘들이 작품 구성들 안에서 공명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는 "우주적 장인(cosmic artisan)"이 되며, 인간적 관심사에는 무관하지만 심오한 생명의 에너지들의 통로가 된다. 이러한 탈영토화의 움직임은 예술로 하여금 보편적 공명들과 비인격적 에너지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며, 잠재태와 현실태 사이의 "스며드는 경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투과성 있는 경계에서 잠재태의 무한한 잠재력들은 새로운 감각과 생성의 형태들로 현실화된다. "집"은 초기의 물질적, 표현적 요소들, 즉 "신체들의 기계적 아상블라주들"과 "발화의 집단적 아상블라주들"을 제공하는 반면, "우주"는 내재성의 평면, 즉 이러한 요소들이 탈영토화되고 우주적 표현들로 재구성되는 비유기적 삶의 경계없는 장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주적-생성의 과정은, 현실을 단순히 반영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생산적 힘, 즉 우주의 지속적인 자기 창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3.2.2. 우주적 힘의 포착

“The painter does not paint a body, but the forces that act upon it. The body is only the instantaneous state of these forces, the matter for their capture.”
– G.Deleuze.

예술의 개념적 궤적, 즉 "집에서 우주로"라는 경로를 통해, 예술이 인간적 규모의 영토를 초월하여 우주적 힘들과 교섭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예술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비인격적이고 전-개체적인 에너지들을 포착하고, 일상적 경험 속에서는 지각불가능한 힘들을 가시화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술은 재현적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적 기원으로부터 독립된 감각들—즉 지각소들과 정동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성취한다. 이러한 감각들은 잠재태의 현실화로서, 강도적 차이들의 결정화로서, 그리고 내재성의 평면의 직접적 발현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회화에 대한 들뢰즈의 분석은 이러한 과정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베이컨의 예술은 개인이 느끼는 공포의 감정이나 그 감정의 주체인 개인을 재현하는 것이

¹²⁷ Deleuze, G., & Guattari, F. (1994). *What Is Philosophy?*, p. 166.

¹²⁸ Ibid., p.189.

아니라 "공포보다는 비명을 그린다"고 할 수 있으며,¹²⁹ 이를 통해 비명을 유발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드러낸다. 이러한 힘들은 심리적이거나 서사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를 형성하거나 그것을 진동시키는 비가시적 힘들"이다.¹³⁰ 들뢰즈에 설명에 의하면, 베이컨의 "변형(deformation)"과 같은 기법들은 형태를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힘들이 신체에 미치는 작용을 드러낸다. "변형은 언제나 신체적인 것이며 정적인 것으로, 그것은 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운동을 힘에 종속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추상적인 것을 형상에 종속시키기도 한다."¹³¹ 베이컨 작품에서의 "형상(Figure)"은 "감각과 관련된 감각적 형태(sensible form)"로서, 뇌의 재현적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¹³² 이것이 바로 "직접적 힘-포착으로서의 형상적인 것(the figural as direct force-capture)"이며, 이를 통해 예술은 감각의 원초적 강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면서 물질 내부의 비인간적이고 우주적인 힘들을 포착하는 것이다.¹³³

이 과정에서 예술은 이러한 힘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도화하는 "추상적인 기계(abstract machine)"로서 작동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추상적 기계는 물론 물리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하는 기능이 아닌... 아직 오지 않았지만 도래할 현실, 새로운 유형의 실재를 구축하는" 다이어그램적 메커니즘이다.¹³⁴ 이러한 예술적 다이어그램은 비재현적 개입으로서, 기존의 형태들과 코드들을 파괴하는 일종의 "생성적인 '파국(generative catastrophe)'"으로 기능한다.¹³⁵ 이것은 새로운 감각들과 실재들의 직접적 출현을 위해 기존의 기반을 정리하고 정화시킨다. 그것은 형태들의 어떤 설계도라기 보다는 순수한 힘들의 지도로서, 예술이 내재성의 평면의 혼돈적 잠재성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한다.¹³⁶ 이러한 다이어그램적 표식들, 즉 "의미화되지 않고 비재현적인, 선들과 영역들"은 힘들이 순환하도록 하여 관람자에게 새로운 정동들을 생산하게 하면서, 실재의 내재적 힘들과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해준다.¹³⁷ 이렇게 포착된 힘들은 비인격적이고 전-개체적인 것으로서, 우주의 근본적 역동성으로부터 끌어내 진 것이다. 그것들은 주관적 감정들이나 인간적 의도들이 아니라, 우주에 편재하는 "비유기적 생명"의 원초적이고

¹²⁹ Deleuze, G. (2003). *Francis Bacon: The Logic of Sensation*, (trans. Daniel W. Smith), London: Continuum, p.xiii.

¹³⁰ Ibid., p. xiv.

¹³¹ Ibid., p. 59.

¹³² Ibid., p. 34

¹³³ '직접적인 힘-포착으로서의 형상적인 것'은 예술만의 특유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형상이 변형되고, 고립된 채로 강도있는 압력을 받아 그 형상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시화하기 위해 내러티브와 설명들을 생략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¹³⁴ Stephen Zepke. (2005), *Art as Abstract Machine: Ontology and Aesthetics in Deleuze and Guattari*. Routledge, p. 142; 다이어그램은 "비기표적이고 비재현적인 선, 지역, 묘선描線, 얼룩의 총체, 하지만 작용하는 총체"로 이해될 수 있다. 박정태. (2019). 철학자 들뢰즈, 화가 베이컨을 말하다, 이학사. 참조.

¹³⁵ 이러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에서의 다이어그램이란 단순히 힘들의 추상적인 지도라기보다는, 기존에 확립된 형식과 코드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실재의 직접적인 출현과 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필수적이지만 폭력적인 파괴로 간주된다.

¹³⁶ Deleuze, G. (2003). *Francis Bacon: The Logic of Sensation*, p. 101.

¹³⁷ Ibid., p. 101.

강도적인 에너지들이다. 예술은 지각소들과 정동들을 구성하면서, 이러한 전-개체적 힘들의 "존재론적 현실화(ontological actualizer)"를 담당하게 된다. 미분화된 강도들과 정동들을 융합하여 결정된 형태의 감각으로 변모시키고, 순수한 잠재력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예술의 이러한 역할은 일종의 창조적 단독성으로서의 그것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술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태와 현실태 사이의 "스머드는 경계"에서 작동하면서 실재의 지속적 자기창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실재의 구조를 감지가능하고 촉지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예술이 우주적 힘들과 직접적으로 교섭하는 메커니즘들을 살펴보았다. 탈영토화를 통해 힘들을 포착하는 이러한 역량은 예술의 창조적 권능의 핵심이다. 다음 절에서는 탈영토화가 어떻게 예술적 창조의 생성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하는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2.3. 탈영토화와 창조

“All art is made of lines of flight, lines of deterritorialization.”

"A line of flight is not a simple escape; it is a creative process. It is not a matter of fleeing, but of making something flee, of causing something to pass or to be engendered, a stream, a hair, a sound, a color. It is a question of producing, not of reproducing."
– G.Deleuze.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술이 우주적 힘들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은 예술에 있어서의 탈영토화 과정에 의존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적 창조를 위한 생성적 메커니즘들이다. 탈영토화는 기존의 형태들을 해체하여 새로운 실재들과 감각들을 생산하며, 내재성의 평면의 혼돈적 잠재성으로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역동적 힘으로서의 예술은 기존에 확립된 코드들과 형태들을 해체하고, 구성 요소들을 그들의 재현적 기능들로부터 해방시킨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모방적 명령에 의해 제약되었던 선들, 색깔들, 소리들, 그리고 단어들은 순수한 힘들과 강도들로 변화한다. 그것들은 유사성이나 의미화에 포섭되지 않고 내재성의 평면 위에서 작동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인공물은 역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술적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것을 창조한 문화를 재현할 수 있지만, 정확히 그것의 강도가 자신의 환경과 단절하고 다른 시대들, 문화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예술적

가치를 갖는다"고 말한다.¹³⁸ 이러한 "자신의 환경과의 단절"이 바로 탈영토화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예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순수한 강도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탈영토화는 예술이 내재성의 평면의 혼돈적 잠재성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잠재적인 것은 실재적이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서, 순수한 차이들과 잠재성들의 저장소이다. 예술은 재현적 규범들을 해체하고 이러한 형태화되지 않은 강도적 세계로 열리면서, 이전에는 지각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들과 감각들을 끌어낸다. 예술적 창조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지속적 운동이다. 그것은 기존 형태들이 붕괴되고(탈영토화) 새로운 배치들로 응고되는(재영토화) 끊임없는 과정인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은 지각과 사유를 영속적으로 확장하는 역동적 힘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들뢰즈는 "회화의 권능이란 정확히 그것이 발효시키는 비회화적 생성(non-pictorial becoming)이다"라고 말한다.¹³⁹ 이러한 "비회화적 생성"은 예술에서의 탈영토화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회화가 자신의 재현적 표면을 초월하여 힘들과 정동들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동적 상호작용이 앞 절에서 예술의 "생성적 파국"으로 규정했던 과정이다. 그것은 잘 통제된, 의도적인 방해/파열로서 파괴적이라기보다는 생산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술에서의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파국을 실행하는 추상기계로서 기능하며, 진부한 표현과 인식들을 대체하여 새로운 실재들을 위한 길을 마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은 사유되지 않은 것을 현실화함으로써 인식과 현실을 변형시키면서 실재의 지속적 자기창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탈영토화를 예술적 생성의 원동력으로 확립함으로써 우주적 힘들을 포착하는 그것의 본질적인 역량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모방적 논리를 우회하는 예술의 이러한 능력에 대한 탐구는 다음 절, 들뢰즈의 비재현적 미학에서 이어서 논의될 것이다.

3.3. 비재현적 미학

"Art does not represent reality; it directly creates sensations that capture the forces of reality, forging new ways of seeing, hearing, and feeling."

"To write is to make a line of flight, to trace a line of flight, to find a line of flight. It is not a question of representing the world, but of producing a world, a new world, with all its unknowns."
— G.Deleuze.

¹³⁸ Sjoerd van Tuinen & Stephen Zepke. (2017). *Art History after Deleuze and Guattari*. Leuven University Press, p. 18.

¹³⁹ Ibid., p. 18.

고전적 모방에 뿌리를 둔 전통적인 미학 패러다임은 예술을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실재를 모방(미메시스)하거나 반영한 것으로 간주한다.¹⁴⁰ 이러한 견해에서 예술은 이미 알려진 형태나 주체들과 유사성을 구축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한다. 들뢰즈는 이를 예술의 창조적 잠재력을 제한하는 중대한 한계로 보고, 예술에 대한 이러한 재현적 관점에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는 《차이와 반복》에서 "재현은 차이에 대한 진정한 사고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한다.¹⁴¹ 동일성과 고정된 존재보다 차이와 생성을 우선시하는 철학(1장에서 탐구한 바와 같이)에서 예술은 단순히 모방일 순 없다. 예술이 재현하지 않는다면, 그럼 예술의 진정한 기능은 무엇인가? 들뢰즈에 따르면, 예술의 목적은 기존의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고 안정된 형식들에 선행하는 전-개체화의 힘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실재는 강도있는 역량들과 역동적인 다중성에 의해 추진되는 끊임없는 생성 과정이다. 그리고 예술은 닮음을 우회하고 이 생성의 내재적 영역으로 직접 뛰어드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주장한 것처럼, "예술은 재현(representation)이 아니라 감각(sensation)"이다.¹⁴² 즉 재현적 미학에서의 이러한 급진적 이탈에서, 예술은 기존의 주어진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과 감각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이 절은 이러한 예술의 비재현적 권능을 예시하는 개념들로서 형상적인 것(the figural)과 다이어그램(diagram)을 검토한다. 이 절에서의 논의는 주로 『프랜시스 베이컨: 감각의 논리』와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해서 개진될 것이다.

3.3.1. 형상적인 것: 구상화와 재현을 넘어서

"형상적인 것(the figural)"의 개념은 들뢰즈의 비재현적 미학의 핵심 원리를 형성하며, 특히 프랜시스 베이컨의 회화에 대한 그의 분석에 잘 설명되어 있다. 형상적인 것은 힘들과 감각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통적인 형상화와 재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개념이다. 들뢰즈는 우선 "형상(Figure)"을 "구상적인 것(the figurative)"으로부터 구별한다. 구상적 양식 내에서의 전통적 예술은 이미지가 그것이 묘사하는 대상이나 서사를 구성하는 다른 이미지들에 대해 종속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¹⁴³ 이러한 모방적 요구는 예술의 활동을 재-현(re-presentation)에 한정시키며, 예술의 기능은 기존 현실을 반영하거나 상징화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들뢰즈가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베이컨의 작품은 신체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전-개체적 단계에서 신체를 변형하고 뒤틀고 구성하는 힘을 가시화한 것이다.¹⁴⁴ 그리고 그 목적은 "재현적 또는 서사적 구상(figuration)에서 형상(figure)을 추출"하여 탈출시키는 것이다.¹⁴⁵ 이렇게 해방된 형상은 지적 재현을 통해 뇌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¹⁴⁰ Henry Somers-Hall, "Representation and Sensation—A Defence of Deleuze's Philosophy of Painting," *Journal of Aesthetics and Phenomenology* 3, no. 1 (2016): p. 59

¹⁴¹ Deleuze, G. *Difference and Repetition*, (trans. Paul Patton.) Columbia University Press, p. 56.

¹⁴² Deleuze, G. & Guattari, F. (1994). *What Is Philosophy?* p. 164.

¹⁴³ Deleuze, G. (2003). *Francis Bacon: The Logic of Sensation*. p. 2.

¹⁴⁴ Ibid., p. 2.

¹⁴⁵ Ibid., p. 34.

신경계와 육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이러한 감각의 직접적 전달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우회와 지루함"을 피하여, 관람자를 작품의 강도적 실재와 즉각적이고 매개되지 않은 만남에 몰입시킨다.¹⁴⁶ 이렇듯 베이컨의 그림에서 형상들은 내러티브적 맥락에서 벗어나 감각과 정동의 원초적인 힘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베이컨이 사용한 "변형(deformation)" 기법은 힘들과 감각들의 이러한 직접적 제시를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형태들을 변형시키는 추상 예술이나 혹은 전통적 예술과는 달리, 베이컨의 변형은 정적이고 강렬한 신체성을 유지한다. 그것은 신체 바로 그 자리에서 발생하며, 신체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드러낸다. 이것들은 고문이 아니라 "그 신체에 가해지는 단순한 힘들에 의해 재조직된 신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들"이다.¹⁴⁷ 예를 들어, 베이컨의 머리들에서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동요(extraordinary agitation)"는 어떤 암시된 움직임이나 서사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머리에 가해지는 압력, 팽창, 수축, 평평해짐, 길어짐 등의 힘들"로부터 발생한다.¹⁴⁸ 베이컨의 초상화들에서 얼굴의 "지워지고 쓸려나간 부분들"은 이러한 힘의 정확한 충격 지점을 가리키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형태들이 공유하는 "비식별성의 영역(zone of indiscernibility)"으로 변형시켜, 궁극적으로 어떤 단일한 재현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¹⁴⁹ 예술이 원초적 강도를 제시하고 비인간적이고 우주적인 힘들을 물질 내에서 직접적으로 포착하는 이러한 과정은, 형상적인 것이 바로 직접적 힘-포착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체화 과정들을 단독적인 예술적 사건으로 통합하는 심오한 기계적 작동, 종종 생성적 파괴로 간주되는 다이어그램에 의해 촉진된다.

또한 베이컨의 작품에서 묘사되는 비명은 이러한 재현 없는 감각을 잘 보여준다. 그는 끔찍한 장면이나 그것의 심리적 효과들을 묘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비명을 유발하는 비가시적이고 비감각적인 힘들을 포착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입이 벌어진 모습이나 짙은 그림자 같은 심연으로 나타나는 비명은 "미래의 힘들에 다름 아닌"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들을 드러낸다.¹⁵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힘들의 결합(coupling of forces)"를 확인할 수 있다: 비명의 지각가능한 힘과 재현된 서사나 공포의 외적 대상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비명을 유발하는, 지각할 수 없는 힘의 결합¹⁵¹ 이러한 의미에서 형상적인 것은 재현을 우회하여 순수한 감각을 제시하고 실재의 핵심을 구성하는 비가시적 힘들을 가시화한다. 그것은 감각을 자율적 존재로 구현하며, 생명력을 지닌 힘들이 영원한 예술적 존재로 직접 현실화되는 것을 나타낸다.¹⁵² 이렇게 형상적인 것은 능동적으로 재현을 우회하여 순수한

¹⁴⁶ Ibid., p. 34.

¹⁴⁷ Ibid., p. 59.

¹⁴⁸ Ibid., p. 58.

¹⁴⁹ Ibid., p. 28 & p. 45.

¹⁵⁰ Ibid., p. 60.

¹⁵¹ Ibid., p. 60~61.

¹⁵² Deleuze, G. & Guattari, F. (1994). *What Is Philosophy?* p. 164.

감각을 제시하면서, 결국 예술이 그 본질에 있어서, 내재적 생성의 생명론적 존재론과 일치함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3.2. 예술에서의 다이어그램의 힘

앞 섹션에서 살펴보았듯이, 재현을 우회하는 전략으로서의 형상적인 것은, 원초적 감각과 힘들을 제시하는 예술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섹션에서는, 들뢰즈의 비재현적 미학에 필수적인 또 하나의 개념인 예술에서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들뢰즈의 다이어그램에 대한 가장 상세한 분석은 베이컨의 그림을 분석하는 『프랜시스 베이컨: 감각의 논리』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그는 다이어그램의 작동들이 회화적 실천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예술이 기존의 형식들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적 가능성들을 만들어 내는, 이른바 생성적 파국으로서 기능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예술에서의 다이어그램은 관습적인 계획이나 도식이 아니다. 그리고 재현도 아니다. 그것은 추상적이고 심오한 생성적 변형의 기계라고 할 수 있다: 다이어그램은 기존의 형식들, 진부한 표현들, 그리고 코드들을 파괴하는 비재현적이고 추상적인 기계로서 기능한다. 들뢰즈는 이러한 다이어그램의 출현에 대해, "구상적이고 확률적인 주어진 것들 한가운데서, 파국이 화폭을 덮쳤다"라고 기술한다.¹⁵³ 이러한 파국적 개입은 "비이성적이고, 비자발적이며, 우연적이고, 자유롭고, 무작위적인" 표시들을 포함한다. 베이컨에 대한 분석에서 들뢰즈는 다이어그램을 "의미화되지 않고 비재현적인 선들과 영역들, 전-획들과 색-패치들로 구성된 작동적 집합체"로 묘사한다.¹⁵⁴ 종종 충동적이거나 우연적인 이러한 표시들은 캔버스 위에 존재하는 기존의 시각적 구성과 구상적 요소들을 파괴한다. 다이어그램은 초기 구상적 형식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scramble)" 파국을 도입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전통적 의미에서 재현적이지는 않지만 순수하게 형상적이고 강렬하게 실재적인 독특한 형태, 즉 형상의 출현을 촉진한다.¹⁵⁵ 즉 이러한 파국은 단순히 파괴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다이어그램은 "혼돈, 파국이면서 동시에 질서나 리듬의 핵"으로 기능한다.¹⁵⁶ 그것은 들뢰즈가 "사실의 가능성들(possibilities of fact)"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아직 최종적인 예술적 "사실"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형상적 가능성들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다이어그램은 전체 회화를 삼켜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간과 시간에서 제한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것은 작품의 일관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표현적 가능성들을 여는, 어떤 통제된 파국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¹⁵³ Deleuze, G. (2003). *Francis Bacon: The Logic of Sensation*. p. 80.

¹⁵⁴ Ibid., p. 101.

¹⁵⁵ Ibid., p. 102.

¹⁵⁶ Ibid., p. 102.

"생성적 파괴로서의 다이어그램"은 미리 결정된 형태들의 설계도가 아닌 순수한 힘들의 지도로서 작동한다. 이런 다이어그램의 역할은 예술적 요소들을 탈영토화하여, 선들, 색채들, 그리고 구성적 요소들을 그것들의 재현적 기능들로부터 분리하는 데 있다. 그것은 (코드에 의해 다이어그램이 지배되는) 추상적 형식주의나 (다이어그램이 전체 회화를 장악한) 표현주의적 혼돈, 그 어느 쪽으로도 떨어지지 않은채, 아무것도 닮지 않으면서도 내포적인 감각을 생산하는 비구상적 형상들, 즉 마치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무언가 탈출하는 듯한 새로운 형상적 가능성들을 생성한다. 이러한 생성적 파괴를 구현함으로써, 다이어그램은 잠재적 가능성들이 새로운 감각들과 실재들로 현실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이러한 다이어그램의 기능은 "제안적(suggestive)"이며,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예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가능성들"을 제시한다.¹⁵⁷ 그것은 시선을 "낯선(foreign)" "수공적 힘(manual power)"과 마주하도록 강제하여,¹⁵⁸ 광학적이고 촉각-광학적(tactile-optical) 세계들을 해체하여 색채-공간의 "햅틱한 시각(haptic vision)"을 드러낸다.¹⁵⁹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이어그램은 새로운 형상들과 구성들을 창조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것은 혼돈의 생명력과 새로움의 지속적 생산을 구현해내며, 예술로 하여금 내재성의 평면의 혼란스러운 잠재성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추상적 기계로서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작동되는 예술은 우주의 고유한 창조적 힘들과 소통하며, 알려진 것 혹은 재현된 것의 한계들을 넘어 확장될 수 있다.

결론 – 강도의 미학과 생명주의 존재론

¹⁵⁷ Ibid., p. 101.

¹⁵⁸ Ibid., p. 100. 다이어그램은 들뢰즈가 회화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레지스터로 규명한 수공적인 것과 광학적인 것 사이를 매개한다. 전통적인 구상 회화는 손을 눈에 종속시키며 재현적 명확성을 유지하는 광학적 관계들을 통해 작동한다. 다이어그램은 화가의 손이 개입하여 이러한 주권적인 광학적 조직을 해체할 때 출현한다.

¹⁵⁹ Ibid., p. 155. 이러한 햅틱한 시각(haptic vision)은 들뢰즈가 제3의 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순전히 광학적인 것보다는 촉각적이고 햅틱한 관계들을 통해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각이다. 이것은 지각하면서 동시에 질료를 구성하는 시각의 양식으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주체-객체의 구분이 붕괴된 상태의 감각 형태이다.